

여성친화정책전략단
정책현안포럼 1

2012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성인지적 대응 방안

- 일 시 : 2012.2.8(수) 14:30~16:00
- 장 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회의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안녕하세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최 금 숙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성인지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개최하는 정책현안 포럼에 참석해주신 내·외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여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성인지적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마련되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다각도로 학교폭력에 대해 안전장치와 예방대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학교폭력의 등장, 저연령화, 잔인성 등으로 인해 학교폭력은 단순히 학생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와 법체계 차원의 대응방안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특히 여학생의 경우 학교폭력은 성추행이나 성폭력과 같은 또 다른 폭력의 양상으로 확산되거나 동반될 수 있어 이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대책이 필요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 여전히 보호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여학생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사회자와 발표자,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12년 2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 최 금 숙

프로그램

사회: 김양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4:30-14:40

개 회 : 문유경 (여성친화정책전략단장)

환영인사 : 최금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14:40-15:20

발제 1. 학교폭력 실태

-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2. 학교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제 3. 학교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5:20-15:40

토론 1. 박부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장)

토론 2. 정경숙 (동작교육지원청 Wee Center 센터장)

토론 3. 원혜옥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토론 4. 박문숙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 사무관)

15:40-16:00

질의응답 및 폐 회

목 차

발표 1

- 학교폭력 실태1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 학교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대응 방안: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35
이미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3

- 학교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59
윤덕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1 ■

학교폭력 실태

장 미 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분석대상과 자료

데이터는 2011년도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조성 방안(Ⅲ)” 연구에서 수집한 실태조사 자료 재분석에 기초한 것이다. 자료는 2011년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조사>의 data를 재분석한 것이다. 이 조사에는 학교폭력을 비롯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다양한 청소년 대상의 폭력피해 및 폭력가해의 현황과 폭력에 영향을 끼치는 개인, 가정환경, 지역사회의 배경변수들이 미치는 영향에 분석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조사대상은 전국 1, 2, 3학년 남녀 중학생 1,846명과 1, 2학년 남녀 고등학생 1,888명이며 최대 허용표집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43\%$ 포인트이다. 조사가 완료된 3,734명의 설문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표본은 할당추출법으로, 생활권과 인구비례를 기준으로 전국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경상권, 강원권의 5개 권역으로 구분하였고 중학교 및 고등학교(일반계 및 실업계)를 대상으로 하였다.

2. 학교폭력 피해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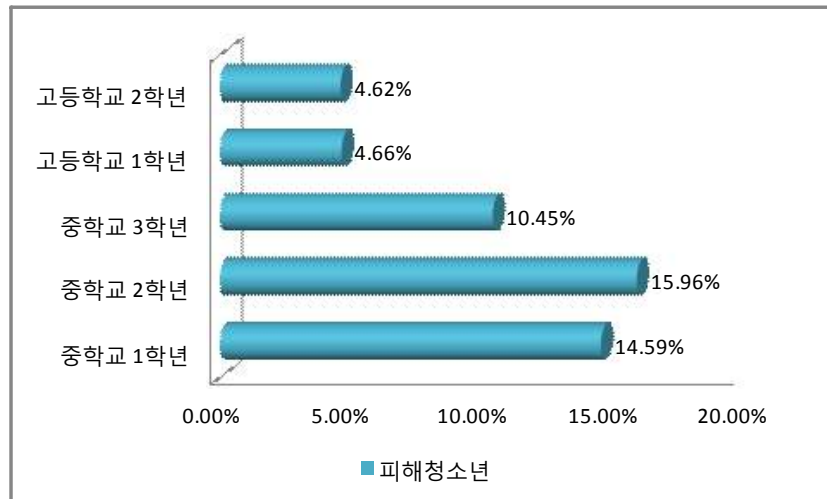
<표 1> 인구학적 특징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인구학적 특징		피해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성별	남자청소년	187 (10.49%)	1,596 (89.51%)	1,783 (100.0%)
	여자청소년	136 (7.96%)	1,573 (92.04%)	1,709 (100.0%)
지역크기	도시	269 (9.25%)	2,639 (90.75%)	2,908 (100.0%)
	읍면	63 (10.02%)	566 (89.98%)	629 (100.0%)
학년	중학교 1학년	69 (14.59%)	404 (85.41%)	473 (100.0%)
	중학교 2학년	128 (15.96%)	674 (84.04%)	802 (100.0%)
	중학교 3학년	51 (10.45%)	437 (89.55%)	488 (100.0%)
	고등학교 1학년	37 (4.66%)	757 (95.34%)	794 (100.0%)
	고등학교 2학년	45 (4.62%)	930 (95.38%)	975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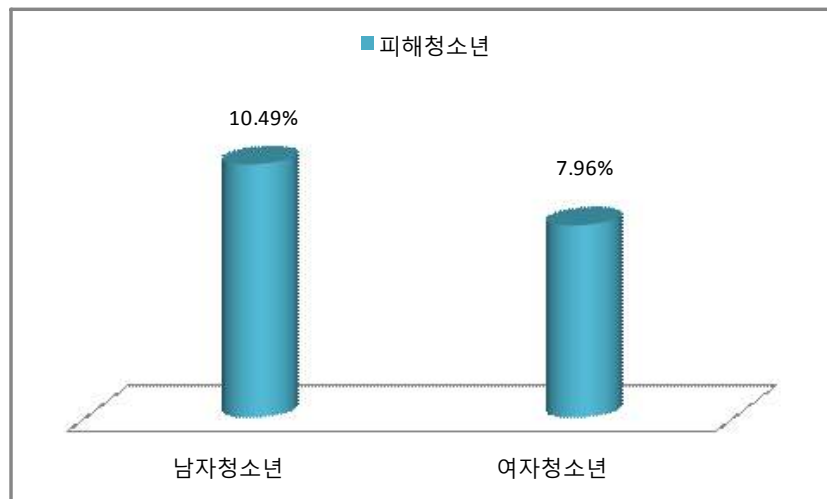
인구학적 특징	피해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전체	332 (9.39%)	3,205 (90.61%)	3,537 (100.0%)

주 1) 학교폭력 피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에서 또는 학교 밖에서 또래 혹은 선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빼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그림 1-1] 학년별 학교폭력 피해경험



[그림 1-2] 성별 학교폭력 피해경험

<표 1>은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을 나누어 사회 인구학적인 일반특징을 나타냈다. 설문지에서 학교폭력의 피해경험에 대한 정의는 “최근 1

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으로 명시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의 경우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남자청소년은 전체 남자청소년 중 10.49%에 해당되는 187명이었다. 여자청소년은 전체 여자청소년 중 7.96%인 136명이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따라서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협박, 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크기에서는 도시에 거주중인 청소년 중 9.25%(269명), 농산어촌에 거주 중인 청소년이 10.02%(63명)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도시보다 읍면에서의 피해율이 약 미미하게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학교유형과 학년별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발생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 1의 14.59%, 중 2의 15.96%, 중 3의 10.45%가 학교폭력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었으며 이는 고 1의 4.66%, 고 2의 4.62%의 피해율과 비교해볼 때 상당히 높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교폭력에 대한 제도적 대처와 예방은 특히 중학교에서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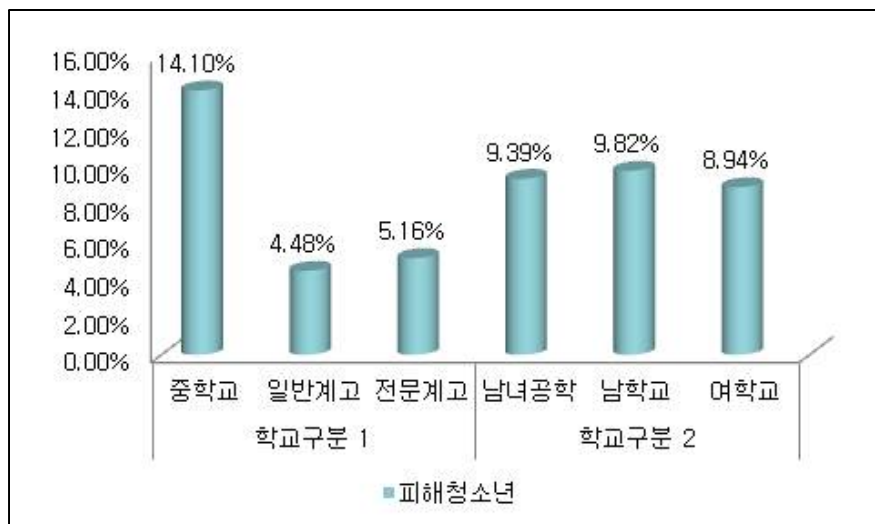
<표 2> 재학 중인 학교유형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유형		피해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학교구분 1(교육과정)	중학교	249 (14.10%)	1,517 (85.90%)	1,766 (100.0%)
	일반계고	55 (4.48%)	1,173 (95.52%)	1,228 (100.0%)
	전문계고	28 (5.16%)	515 (94.84%)	543 (100.0%)
학교구분 2(성별)	남녀공학	257 (9.39%)	2,479 (90.61%)	2,736 (100.0%)
	남학교	38 (9.82%)	349 (90.18%)	387 (100.0%)
	여학교	37 (8.94%)	377 (91.06%)	414 (100.0%)
전체		332 (9.39%)	3,205 (90.61%)	3,537 (100.0%)

주 1) 학교폭력 피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2>는 학교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유형에 따라 학교폭력의 피해율이 상이하게 나타나는지를 집계하였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의 피해율이 14.10%(249명)로 고등학교이니 일반계고의 4.48%(55명), 전문계고의 5.16%(28명)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주로 학교폭력의 발생이 중학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성별 학교유형의 구분에서는 집단별로 거의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남녀공학이 9.39%(257명), 남학교가 9.82%(38명), 여학교가 8.94%(37명)를 각각 나타내면서 대체로 여학교가 다른 유형의 학교에 비해 피해발생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2] 재학 중인 학교 유형별 피해경험

<표 3> 가족구성원 특징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족구성원 특징		피해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부모 동거	양친	274 (9.10%)	2,737 (90.90%)	3,011 (100.0%)
	아버지만	15 (10.49%)	128 (89.51%)	143 (100.0%)
	어머니만	31 (12.11%)	225 (87.89%)	256 (100.0%)
	둘 다 없음	9 (10.34%)	78 (89.66%)	87 (100.0%)

주 1) 학교폭력 피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에서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빼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4>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아버지의 교육수준		피해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아버지의 교육수준	대졸이하	134 (8.56%)	1,432 (91.44%)	1,566 (100.0%)
	대졸이상	182 (9.98%)	1,641 (90.02%)	1,823 (100.0%)

- 주 1) 학교폭력 피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에서 또는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빼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5> 가계경제수준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가계경제수준		피해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가계경제수준(1):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주택임대비 등의 체납경험	없다	277 (9.03%)	2,789 (90.97%)	3,066 (100.0%)
	가끔 그렇다	39 (10.77%)	323 (89.23%)	362 (100.0%)
	자주 그렇다	9 (13.64%)	57 (86.36%)	66 (100.0%)
가계경제수준(2): 정부기관, 종교단체, 복지기관으로부터 지원수급 경험	없다	293 (9.14%)	2,914 (90.86%)	3,207 (100.0%)
	가끔 그렇다	21 (10.29%)	183 (89.71%)	204 (100.0%)
	자주 그렇다	11 (12.79%)	75 (87.21%)	86 (100.0%)
가계경제수준(3): 공과금 (수련활동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체납 경험	없다	295 (9.27%)	2,889 (90.73%)	3,184 (100.0%)
	가끔 그렇다	23 (9.09%)	230 (90.91%)	253 (100.0%)
	자주 그렇다	7 (11.86%)	52 (88.14%)	59 (100.0%)
전체		332 (9.39%)	3,205 (90.61%)	3,537 (100.0%)

- 주 1) 학교폭력 피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에서 또는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빼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3>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징으로 부모와의 동거형태를 집단별 비교로 나타낸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동거유형별로 학교폭력의 피해율이 크지는 않지만 1~3%에서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어머니하고만 동거할 경우 12.11%(31

명)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아버지와 동거할 경우(10.49%, 15명), 부모 두 분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10.34%,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양친 모두와 동거할 경우는 9.10%(274명)로 여러 동거형태 중 피해발생율이 가장 저조하였다.

<표 4>에서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아버지가 대졸 이상일 때 9.98%(182명), 대졸이하일 경우가 8.56%(134명)로 부모가 고학력 집단에 속할 때 피해발생율이 약 1.5%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

<표 5>의 가계경제수준은 세 가지 지표에 의해 구분하였다. ①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주택임대비 등의 체납경험 ②정부기관, 종교단체, 복지기관으로부터 지원수급 경험 ③공과금(수련활동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체납 경험의 세 범주로 나누어 가계곤란수준에 따른 학교폭력의 피해율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세 가지 지표에서 대체로 가계곤란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폭력의 피해율도 높아지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즉,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주택임대비 등의 체납경험”에서는 자주 체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3.64%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가끔 체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는 10.77%가, 전혀 곤란을 겪지 않았던 청소년 중에는 9.03%가 피해율로 집계되면서 가계경제수준과 학교폭력 피해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임을 암시하였다. 마찬가지로, “정부기관, 종교단체, 복지기관으로부터 지원수급 경험”에서는 자주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청소년이 12.79%의 피해율을 나타내었고 가끔 지원을 수급받은 청소년은 10.29%, 가계곤란을 겪지 않은 청소년은 9.14%의 피해율을 각각 기록하였다. “공과금(수련활동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체납 경험”에서도 “자주 그렇다”가 11.86%, “가끔 그렇다”가 9.09%, “없다”가 9.27%로 조사되었다.

3. 학교폭력 피해사실의 공지

<표 6> 인구학적 특징과 피해사실의 알림

인구학적 특징		알림	알리지 않음	전체
성별	남자청소년	121 (67.22%)	59 (32.78%)	180 (100.0%)
	여자청소년	110 (83.33%)	22 (16.67%)	132 (100.0%)
지역크기	도시	201 (77.01%)	60 (22.99%)	261 (100.0%)
	농산어촌	36 (61.02%)	23 (38.98%)	59 (100.0%)

인구학적 특징		알림	알리지 않음	전체
학년	중학교 1학년	56 (83.58%)	11 (16.42%)	67 (100.0%)
	중학교 2학년	81 (66.39%)	41 (33.61%)	122 (100.0%)
	중학교 3학년	38 (76.00%)	12 (24.00%)	50 (100.0%)
	고등학교 1학년	29 (78.38%)	8 (21.62%)	37 (100.0%)
	고등학교 2학년	31 (73.81%)	11 (26.19%)	42 (100.0%)
전체		237 (74.06%)	83 (25.94%)	3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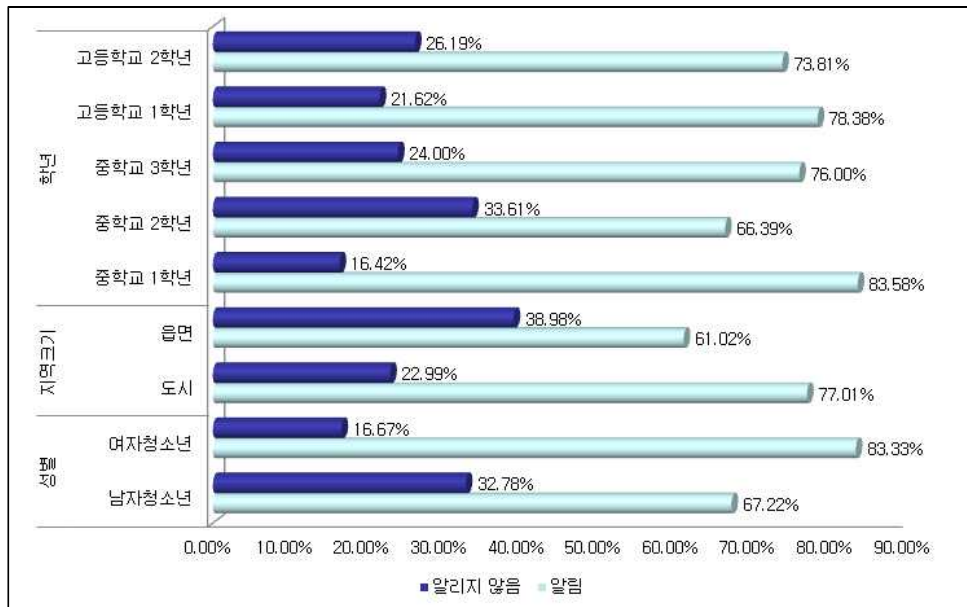
주 1) 학교폭력 피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6>는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한 적이 있는 청소년 320명을 대상으로 하여 피해사실을 가족, 선생님, 친구, 전문기관, 경찰 등 누군가에게 공지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표이다. 범주는 성별, 지역크기, 학년의 사회인구학적 특징별로 구분하였다.

먼저, 성별분포를 살펴보면, 남자청소년은 전체 피해청소년 중 67.22%(121명)가 학교폭력의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렸던 반면 여자청소년은 83.33%(110명)가 피해사실을 알린 것으로 나타나 여자청소년의 알린 비율이 남자청소년의 알린 비율에 비해 훨씬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기 꺼려하거나 묵인하는 경향이 있는 남자청소년에게 좀 더 학교폭력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명할 수 있도록 독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지역크기별로는 도시에 거주중인 청소년은 피해사실을 알릴 경우 77.01%(201명)의 비율을 나타낸 반면, 농산어촌에 거주중인 청소년은 61.02%(36명)의 저조한 비율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읍면청소년이 대체로 더 학교폭력의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4] 성별 및 학년별 피해사실의 알림 여부

학년별로는 먼저 중학생의 경우 중 1이 83.58%(56명), 중 2가 66.39%(81명), 중 3이 76.00%(38명)의 비율로 학교폭력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린 경험이 있었으며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고 1이 78.38%(29명), 고 2가 73.81%(31명)의 비율로 피해사실을 알린 경험이 있었다. 중 1학생의 알리는 비율이 제일 높은 반면, 중 2가 되면서 알리는 비율이 약 20%가량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의 원인은 추후의 연구를 통해서 좀 더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7>는 조사대상 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유형별로 피해사실에 대해 알린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먼저 교과과정별로 살펴보면, 중학교에서는 평균적으로 73.33%(176명)의 비율로 피해사실을 알렸고 이는 일반계고의 76.36%(42명), 전문계고의 76.00%(19명)에 비교하면 약 3%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대체로 중학교 학생들이 고등학교 학생들에 비해 더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알리는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표 7> 재학 중인 학교유형과 피해사실의 알림

학교유형		알림	알리지 않음	전체
학교구분 1(교육과정)	중학교	176 (73.33%)	64 (26.67%)	240 (100.0%)
	일반계고	42 (76.36%)	13 (23.64%)	55 (100.0%)
	전문계고	19 (76.00%)	6 (24.00%)	25 (100.0%)
학교구분 2(성별)	남녀공학	181 (72.98%)	67 (27.02%)	248 (100.0%)
	남학교	24 (68.57%)	11 (31.43%)	35 (100.0%)
	여학교	32 (86.49%)	5 (13.51%)	37 (100.0%)
전체		237 (74.06%)	83 (25.94%)	320 (100.0%)

주 1) 학교폭력 피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에서 또는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성별 학교유형의 구분에서는 남녀공학에 재학중인 학생이 72.98%(181명)의 공지율을 나타낸 반면 남학교에서는 68.57%(24명), 여학교에서는 86.49%(32명)의 공지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남학교의 공지율이 제일 저조하면서 여학교의 공지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8> 가족구성원 특징과 피해사실의 알림

가족구성원 특징		알림	알리지 않음	전체
부모 동거	양친	197 (74.34%)	68 (25.66%)	265 (100.0%)
	아버지만	9 (64.29%)	5 (35.71%)	14 (100.0%)
	어머니만	23 (79.31%)	6 (20.69%)	29 (100.0%)
	둘 다 없음	6 (66.67%)	3 (33.33%)	9 (100.0%)

주 1) 학교폭력 피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빼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9>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피해사실의 알림

아버지의 교육수준		알림	알리지 않음	전체
아버지의 교육수준	대졸이하	89 (68.46%)	41 (31.54%)	130 (100.0%)
	대졸이상	135 (77.14%)	40 (22.86%)	175 (100.0%)

주 1) 학교폭력 피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빼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10> 가계경제수준과 피해사실의 알림

가계경제수준		알림	알리지 않음	전체
가계경제수준(1):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주택임대비 등의 체납경험	없다	198 (73.88%)	70 (26.12%)	268 (100.0%)
	가끔 그렇다	26 (70.27%)	11 (29.73%)	37 (100.0%)
	자주 그렇다	8 (100.00%)	0 (0.00%)	8 (100.0%)
가계경제수준(2): 정부기관, 종교단체, 복지기관으로부터 지원수급 경험	없다	208 (73.76%)	74 (26.24%)	282 (100.0%)
	가끔 그렇다	15 (75.00%)	5 (25.00%)	20 (100.0%)
	자주 그렇다	9 (81.82%)	2 (18.18%)	11 (100.0%)
가계경제수준(3): 공과금 (수련활동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체납 경험	없다	211 (74.30%)	73 (25.70%)	284 (100.0%)
	가끔 그렇다	16 (72.73%)	6 (27.27%)	22 (100.0%)
	자주 그렇다	5 (71.43%)	2 (28.57%)	7 (100.0%)
전체		237 (74.06%)	83 (25.94%)	32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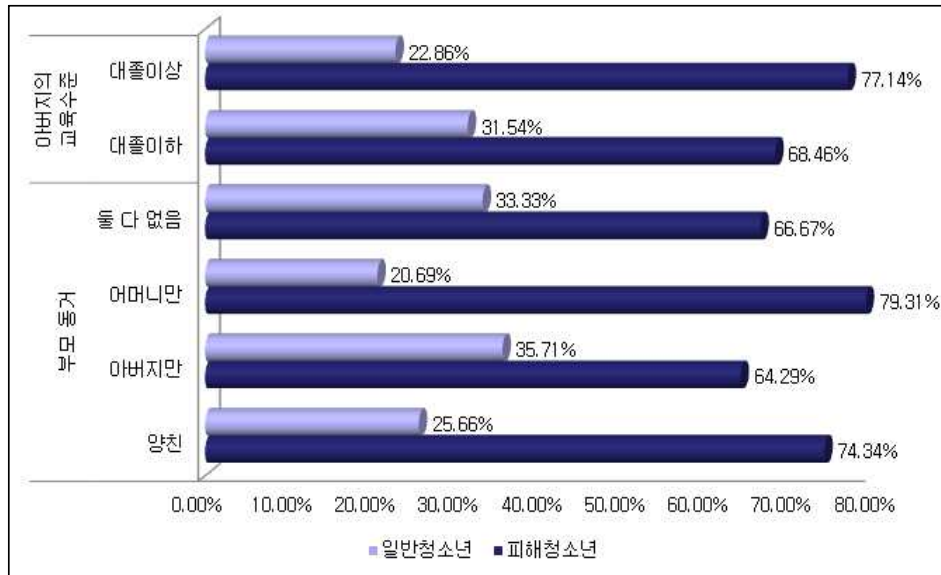
- 주 1) 학교폭력 피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에서 또는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로부터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당한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8>은 가족구성원의 특징에서 부모동거 유형별로 학교폭력의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린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율을 집계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양친과 모두 동거할 경우 74.34%, 아버지와만 동거할 경우 64.29%, 어머니와만 동거할 경우 79.31%, 부모 모두 부재할 경우가 66.67%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누군가에게 알린 적이 있었다. 피해사실을 알리는데 있어 가장 저조한 비율을 나타낸 집단은 아버지와만 동거할 경우였으며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낸 집단은 어머니와 동거할 경우였다.

<표 9>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피해사실을 알린 청소년의 비율 분포는 아버지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가지고 있을 경우 77.14%가 피해사실을 누군가에게 알렸던 반면, 대졸 이하의 집단에서는 68.67%에 그쳤다. 따라서 아버지가 고학력 집단에 속할수록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알리는데 적극적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10>의 가계경제수준에서는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나 가계경제수준이 더

나뉘어 피해사실을 알리는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도 일부 확인되었다. “정부기관, 종교 단체, 복지기관으로부터 지원수급 경험”의 경우 대체로 지원수급의 빈도가 높을수록 피해 사실을 알리는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공과금(수련활동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체납 경험”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5] 부모와 동거유형 및 아버지의 교육수준별 피해사실의 알림 여부

4. 학교폭력 가해경험

<표 11> 인구학적 특징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인구학적 특징		가해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성별	남자청소년	109 (5.96%)	1,720 (94.04%)	1,829 (100.0%)
	여자청소년	75 (4.28%)	1,679 (95.72%)	1,754 (100.0%)
지역크기	도시	157 (5.26%)	2,825 (94.74%)	2,982 (100.0%)
	농산어촌	31 (4.78%)	617 (95.22%)	648 (100.0%)
학년	중학교 1학년	40 (8.26%)	444 (91.74%)	484 (100.0%)
	중학교 2학년	58 (7.19%)	749 (92.81%)	807 (100.0%)
	중학교 3학년	24 (4.86%)	470 (95.14%)	494 (100.0%)
	고등학교 1학년	30 (3.64%)	794 (96.36%)	824 (100.0%)
	고등학교 2학년	35 (3.45%)	980 (96.55%)	1,015 (100.0%)
전체		188 (5.18%)	3,442 (94.82%)	3,630 (100.0%)

주 1) 학교폭력 가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에게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힌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11>은 학교폭력을 가해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가해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을 나누어 성별, 지역크기, 학년의 인구학적인 특징을 범주별로 집계한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경험의 측정은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에게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힌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림 6] 학년별 학교폭력 가해 경험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전체 남자청소년 중 5.96%(109명)의 가해율을 나타내면서 여자청소년의 가해율인 4.28%(75명)에 비해 약 1-2% 정도 미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에 거주 중인 청소년은 5.26%(157명)의 가해율을 나타내었고 농산어촌에 거주 중인 청소년은 4.78%(31명)의 가해율을 나타내면서 농산어촌보다 도시에 거주 중인 청소년의 가해율이 미미하게 더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학년별 가해율의 차이를 살펴보면 피해율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중학교에서의 가해율이 고등학교에서의 가해율에 비해 2배 가량 더 높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중 1의 가해율은 8.26%(40명), 중 2의 가해율은 7.19%(58명), 중 3은 4.86%(24명)를 각각 나타내었으며 이는 고 1의 3.64%(30명), 고 2의 3.45%(35명)에 비교해보면 현저하게 높은 수치이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는 특히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상과 달리 고등학교가 아닌 중학교에서 폭력이 주로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 좀 더 상세한 조사를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만 15세 이하의 중학생들의 특성을 맞출 수 있는 집중적인 정책대안이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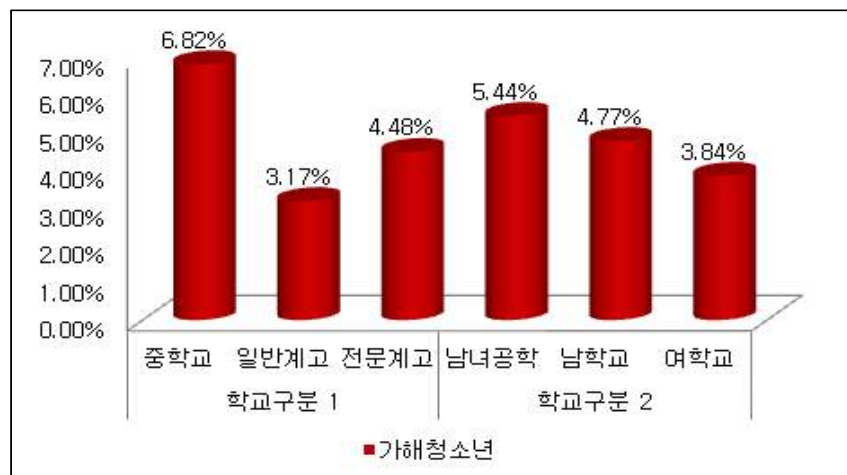
<표 12> 재학 중인 학교유형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학교유형		가해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학교구분 1(교과과정)	중학교	122 (6.82%)	1,666 (93.18%)	1,788 (100.0%)
	일반계고	40 (3.17%)	1,222 (96.83%)	1,262 (100.0%)
	전문계고	26 (4.48%)	554 (95.52%)	580 (100.0%)
학교구분 2(성별)	남녀공학	153 (5.44%)	2,662 (94.56%)	2,815 (100.0%)
	남학교	19 (4.77%)	379 (95.23%)	398 (100.0%)
	여학교	16 (3.84%)	401 (96.16%)	417 (100.0%)
전체		188 (5.18%)	3,442 (94.82%)	3,630 (100.0%)

주 1) 학교폭력 가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에게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힌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12>은 학교폭력의 가해율을 학교유형별로 집계한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의 가해율이 6.82%(122명)를 나타내었고 이는 일반계고의 3.17%(40명), 전문계고의 4.48%(26명)에 대비하여 볼 때 상당히 높은 가해발생율이라고 볼 수 있다. 성별에 의한 학교 구분에 서는 남녀공학에서의 가해율이 5.44%(153명)로 제일 높았으며 그 다음이 남학교로 4.77%(19명), 가장 저조한 집단이 여학교로 3.84%(16명)의 가해율을 나타내었다.



[그림 7] 재학 중인 학교유형별 학교폭력 가해경험

<표 13> 가족구성원 특징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가족구성원 특징		가해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부모 동거	양친	153 (4.95%)	2,937 (95.05%)	3,090 (100.0%)
	아버지만	12 (7.84%)	141 (92.16%)	153 (100.0%)
	어머니만	16 (6.20%)	242 (93.80%)	258 (100.0%)
	둘 다 없음	5 (5.62%)	84 (94.38%)	89 (100.0%)

- 주 1) 학교폭력 가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에게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힌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14> 아버지의 교육수준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아버지의 교육수준		가해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아버지의 교육수준	대졸이하	74 (4.60%)	1,536 (95.40%)	1,610 (100.0%)
	대졸이상	100 (5.34%)	1,774 (94.66%)	1,874 (100.0%)

- 주 1) 학교폭력 가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에게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힌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15> 가계경제수준과 학교폭력 가해경험

가계경제수준		가해청소년	일반청소년	전체
가계경제수준(1):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주택임대비 등의 체납경험	없다	156 (4.96%)	2,992 (95.04%)	3,148 (100.0%)
	가끔 그렇다	23 (6.12%)	353 (93.88%)	376 (100.0%)
	자주 그렇다	6 (9.38%)	58 (90.63%)	64 (100.0%)
가계경제수준(2): 정부기관, 종교단체, 복지기관으로부터 지원수급 경험	없다	168 (5.10%)	3,128 (94.90%)	3,296 (100.0%)
	가끔 그렇다	11 (5.37%)	194 (94.63%)	205 (100.0%)
	자주 그렇다	6 (6.67%)	84 (93.33%)	90 (100.0%)
가계경제수준(3): 공과금(수련활동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체납 경험	없다	164 (5.02%)	3,100 (94.98%)	3,264 (100.0%)
	가끔 그렇다	12 (4.56%)	251 (95.44%)	263 (100.0%)
	자주 그렇다	9 (14.52%)	53 (85.48%)	62 (100.0%)
전체		188 (5.18%)	3,442 (94.82%)	3,630 (100.0%)

- 주 1) 학교폭력 가해: 최근 1년 중 학교 안이나 밖에서 또래 혹은 선후배에게 협박, 폭행, 돈 뺏기, 왕따(집단따돌림) 등의 피해를 입힌 경험의 유무
 2) 행(row)=100%

<표 13>은 가족구성원의 특징에 있어 부모와의 동거유형에 따른 학교폭력의 가해율의 차이를 집계한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양친과 모두 거주할 경우 4.95%로 가장 낮은 가해율을 나타낸 반면, 아버지와만 동거할 경우 7.84%, 어머니만 동거할 경우 6.20%,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을 경우가 5.62%의 좀 더 높은 가해율을 나타내었다. 여러 유형 중 가장 높은 가해율을 나타낸 집단은 아버지와 동거할 경우였다.

<표 14>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집단별 가해율 차이에서는 아버지가 대졸 이상의 고학력을 가졌을 경우 5.34%의 가해율을 나타내면서 대졸 이하의 4.60%에 비해 더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표 15>의 가계경제수준의 경우, 세 가지 모든 항목에서 가계의 경제곤란수준이 높을수록 대체로 학교폭력의 가해율 역시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특히 가족의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울수록 학교폭력가해율이 높아지는 편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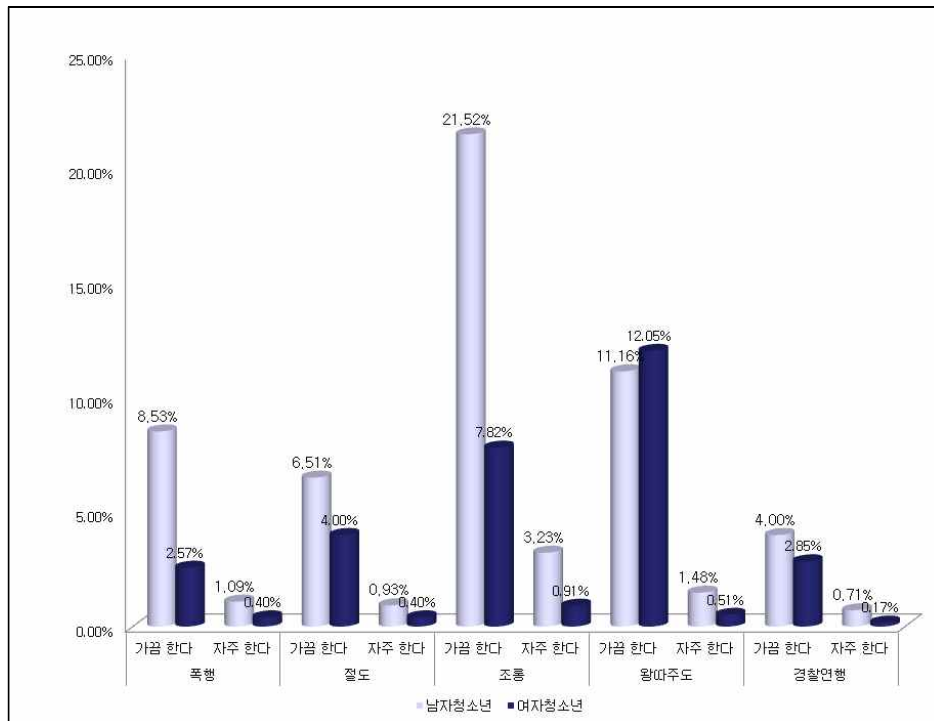
5. 교우관계에서의 폭력성향

<표 16> 성별 교우관계에서의 일탈행위 수준

교우관계의 일탈행위		남자청소년	여자청소년	전체
폭행	전혀 안한다	1,652 (90.37%)	1,699 (97.03%)	3,351 (93.63%)
	가끔 한다	156 (8.53%)	45 (2.57%)	201 (5.62%)
	자주 한다	20 (1.09%)	7 (0.40%)	27 (0.75%)
절도	전혀 안한다	1,691 (92.56%)	1,675 (95.61%)	3,366 (94.05%)
	가끔 한다	119 (6.51%)	70 (4.00%)	189 (5.28%)
	자주 한다	17 (0.93%)	7 (0.40%)	24 (0.67%)
조롱	전혀 안한다	1,374 (75.25%)	1,599 (91.27%)	2,973 (83.09%)
	가끔 한다	393 (21.52%)	137 (7.82%)	530 (14.81%)
	자주 한다	59 (3.23%)	16 (0.91%)	75 (2.10%)
왕따주도	전혀 안한다	1,597 (87.36%)	1,531 (87.44%)	3,128 (87.40%)
	가끔 한다	204 (11.16%)	211 (12.05%)	415 (11.60%)
	자주 한다	27 (1.48%)	9 (0.51%)	36 (1.01%)
경찰연행	전혀 안한다	1,740 (95.29%)	1,699 (96.97%)	3,439 (96.12%)
	가끔 한다	73 (4.00%)	50 (2.85%)	123 (3.44%)
	자주 한다	13 (0.71%)	3 (0.17%)	16 (0.45%)
전체		1,892 (100.0%)	1,790 (100.0%)	3,682 (100.0%)

주 1) 교우관계의 일탈수준: 설문응답자와 가장 가깝게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의 행동

2) 열(column)=100%



[그림 8] 성별에 따른 교우관계에서의 일탈행위 수준

<표 16>은 설문응답자가 가장 가깝게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의 폭력성향을 묻고 있으며 성별로 교우관계의 일탈수준의 차이를 집계하고 있다. 교우관계에서의 폭력성향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폭행, 절도, 조롱, 왕따(집단따돌림) 주도, 경찰연행의 총 5가지 항목을 사용하였으며 가깝게 어울리는 친구들이 해당항목의 일탈행위를 “전혀 안 한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중 어디에 속하는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일탈행위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항목에서 남자청소년들은 여자청소년 집단에 비해 더 폭력성향이 높은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폭행에서는 남자청소년의 약 9.5%가 교우관계에서 폭행의 가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약 3%에 그친 여자청소년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치이다. 절도에서도 남자청소년 중 약 7%가 절도행위를 일삼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여자청소년의 약 4%에 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조롱의 경우, 특히 남자청소년의 교우관계에서 높게 나타나는 일탈행위로 집계되었는데, 남자청소년 중 약 25%는 자신의 친구들이 심한 조롱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이는 여자청소년의 약 8.5%에 대비하면 높은 수치이다. 왕따(집단따돌림)주도에서는 남녀 모두 약 12%가 교우관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남녀청소년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따라서 왕따의 가해의 경우 다른 폭력군과 달리 비교적 성별로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연행에서는 남자청소년

년 중 5%, 여자청소년 중 3%가 가까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17> 지역크기별 교우관계에서의 일탈행위 수준

교우관계의 일탈행위		도시 거주	농산어촌 거주	전체
폭행	전혀 안한다	2,801 (93.71%)	595 (93.11%)	3,396 (93.61%)
	가끔 한다	168 (5.62%)	36 (5.63%)	204 (5.62%)
	자주 한다	20 (0.67%)	8 (1.25%)	28 (0.77%)
절도	전혀 안한다	2,804 (93.81%)	608 (95.15%)	3,412 (94.05%)
	가끔 한다	166 (5.55%)	26 (4.07%)	192 (5.29%)
	자주 한다	19 (0.64%)	5 (0.78%)	24 (0.66%)
조롱	전혀 안한다	2,492 (83.40%)	523 (81.85%)	3,015 (83.13%)
	가끔 한다	439 (14.69%)	98 (15.34%)	537 (14.81%)
	자주 한다	57 (1.91%)	18 (2.82%)	75 (2.07%)
왕따주도	전혀 안한다	2,614 (87.45%)	560 (87.64%)	3,174 (87.49%)
	가끔 한다	345 (11.54%)	73 (11.42%)	418 (11.52%)
	자주 한다	30 (1.00%)	6 (0.94%)	36 (0.99%)
경찰연행	전혀 안한다	2,867 (95.95%)	620 (97.03%)	3,487 (96.14%)
	가끔 한다	107 (3.58%)	17 (2.66%)	124 (3.42%)
	자주 한다	14 (0.47%)	2 (0.31%)	16 (0.44%)
전체		3,075 (100.0%)	659 (100.0%)	3,734 (100.0%)

주 1) 교우관계의 일탈수준: 설문응답자와 가장 가깝게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의 행동

2) 열(column)=100%

<표 17>은 지역크기별로 교우관계의 일탈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지역크기에서는 도시거

주 청소년과 농산어촌 거주 청소년 사이에 두드러지는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대체로 지역을 막론하고 교우관계에서의 폭력수준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18> 학년별 교우관계에서의 일탈행위 수준

교우관계의 일탈행위		중1	중2	중3	고1	고2	전체
폭행	전혀 안한다	439 (90.52%)	755 (93.09%)	455 (92.29%)	779 (94.42%)	963 (95.54%)	3,391 (93.62%)
	가끔 한다	42 (8.66%)	50 (6.17%)	31 (6.29%)	37 (4.48%)	43 (4.27%)	203 (5.60%)
	자주 한다	4 (0.82%)	6 (0.74%)	7 (1.42%)	9 (1.09%)	2 (0.20%)	28 (0.77%)
절도	전혀 안한다	449 (92.58%)	754 (92.97%)	457 (92.89%)	779 (94.31%)	968 (96.03%)	3,407 (94.06%)
	가끔 한다	33 (6.80%)	50 (6.17%)	30 (6.10%)	42 (5.08%)	37 (3.67%)	192 (5.30%)
	자주 한다	3 (0.62%)	7 (0.86%)	5 (1.02%)	5 (0.61%)	3 (0.30%)	23 (0.64%)
조롱	전혀 안한다	398 (82.06%)	672 (82.86%)	397 (80.69%)	700 (84.75%)	846 (84.01%)	3,013 (83.21%)
	가끔 한다	76 (15.67%)	125 (15.41%)	83 (16.87%)	107 (12.95%)	144 (14.30%)	535 (14.77%)
	자주 한다	11 (2.27%)	14 (1.73%)	12 (2.44%)	19 (2.30%)	17 (1.69%)	73 (2.02%)
왕따 주도	전혀 안한다	365 (75.41%)	659 (81.26%)	429 (87.02%)	769 (93.10%)	948 (94.05%)	3,170 (87.52%)
	가끔 한다	109 (22.52%)	140 (17.26%)	59 (11.97%)	53 (6.42%)	57 (5.65%)	418 (11.54%)
	자주 한다	10 (2.07%)	12 (1.48%)	5 (1.01%)	4 (0.48%)	3 (0.30%)	34 (0.94%)
경찰 연행	전혀 안한다	468 (96.49%)	787 (97.04%)	464 (94.12%)	793 (96.12%)	972 (96.52%)	3,484 (96.22%)
	가끔 한다	15 (3.09%)	21 (2.59%)	25 (5.07%)	27 (3.27%)	34 (3.38%)	122 (3.37%)
	자주 한다	2 (0.41%)	3 (0.37%)	4 (0.81%)	5 (0.61%)	1 (0.10%)	15 (0.41%)
전체		500 (100.0%)	834 (100.0%)	509 (100.0%)	851 (100.0%)	1,034 (100.0%)	3,728 (100.0%)

주 1) 교우관계의 일탈수준: 설문응답자와 가장 가깝게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의 행동

2) 열(column)=100%

<표 18>는 학교 및 학년별 교우관계에서의 일탈수준을 집계한 표이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폭력유형에서 중학교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더 폭력성향이 높은 친구들과 교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폭행에서는 중1~3의 학생들 중 대체로 7-9% 정도의 응답자가 폭력행위를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으며 이는 4-5%에 머문 고등학교 청소년들에 비해 높은 비율이었다. 절도에서는 7%가량의 중학생들이 절도행위를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고 고등학교 청소년들은 4-6% 수준이었다. 심한 조롱행위에서는 중학교 청소년들에서는 17-19% 정도가 이러한 행위를 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으며 고등학교에서는 15-16% 수준이었다. 왕따(집단따돌림)주도에서는 특히 학년별 편차가 가장 심하게 나타난 항목이었는데, 중1에서는 약 25%의 청소년들이 왕따(집단따돌림)행위를 주도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일 높았으며 중 2은 약 19%, 중 3은 약 13%, 고 1은 약 7%, 고 2는 약 6%까지 떨어지면서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차 왕따를 가해하는 경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집단따돌림의 문제는 특히 중1-2의 어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가해되고 있는 현상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들 집단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경찰연행의 경우 중학교학생들은 학년별 편차가 나타났는데 특히 중3이 가장 높은 약 6%로 이러한 경향이 있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는 것으로 응답되었으며 고등학생들은 같은 항목에 있어 약 4%로 고르게 나타났다.

종합해보면, 학년별 교우관계의 폭력성향은 중학교가 고등학교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집단따돌림의 문제 경우 중학교 교육과정에 막 진입한 1학년과 2학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점은 주목할만한 부분이다.

<표 19> 학교유형별 교우관계에서의 일탈행위 수준

교우관계의 일탈행위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	전체
폭행	전혀 안한다	2,643 (93.52%)	350 (89.29%)	403 (98.29%)	3,396 (93.61%)
	가끔 한다	156 (5.52%)	41 (10.46%)	7 (1.71%)	204 (5.62%)
	자주 한다	27 (0.96%)	1 (0.26%)	0 (0.00%)	28 (0.77%)
절도	전혀 안한다	2,656 (93.95%)	364 (93.09%)	392 (95.61%)	3,412 (94.05%)
	가끔 한다	150 (5.31%)	25 (6.39%)	17 (4.15%)	192 (5.29%)
	자주 한다	21 (0.74%)	2 (0.51%)	1 (0.24%)	24 (0.66%)
조롱	전혀 안한다	2,344 (82.91%)	296 (75.90%)	375 (91.46%)	3,015 (83.13%)
	가끔 한다	417 (14.75%)	87 (22.31%)	33 (8.05%)	537 (14.81%)
	자주 한다	66 (2.33%)	7 (1.79%)	2 (0.49%)	75 (2.07%)
왕따주도	전혀 안한다	2,467 (87.27%)	345 (88.01%)	362 (88.51%)	3,174 (87.49%)
	가끔 한다	329 (11.64%)	43 (10.97%)	46 (11.25%)	418 (11.52%)
	자주 한다	31 (1.10%)	4 (1.02%)	1 (0.24%)	36 (0.99%)
경찰연행	전혀 안한다	2,711 (95.93%)	378 (96.68%)	398 (97.07%)	3,487 (96.14%)
	가끔 한다	99 (3.50%)	13 (3.32%)	12 (2.93%)	124 (3.42%)
	자주 한다	16 (0.57%)	0 (0.00%)	0 (0.00%)	16 (0.44%)
전체		2,908 (100.0%)	407 (100.0%)	419 (100.0%)	3,734 (100.0%)

주 1) 교우관계의 일탈수준: 설문응답자와 가장 가깝게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의 행동
 2) 열(column)=100%

<표 19>은 학교유형을 남녀공학, 남학교, 여학교로 나누어 교우관계에서의 폭력성향을 집계한 표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일탈행위 유형군에서 남학교가 교우관계에서의 일탈수준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녀공학, 여학교 순이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행의 경우 남학교는 약 11%의 응답자가 자신의 가까운 친구들이 이러한 행위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남녀공학의 약 7%와 여학교의 약 2%에 비교하면 높은 수치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절도의 경우 남녀공학과 남학교가 약 6-7%로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는 반면, 여학교의 경우 4% 수준에 그쳤다. 심한 조롱행위에서는 남학교 중 약 24%의 응답자가 가까운 친구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남녀공학은 약 17%, 여학교는 약 8.5% 수준으로 집계되면서 남학교에서의 폭력가해가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을 암시하였다. 왕따(집단따돌림) 주도의 경우 학교유형별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으며 대체로 유형에 상관없이 11-13%의 응답자들이 교우관계에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경찰연행에서는 남녀공학이 약 4%로 제일 높았고 남학교와 여학교가 약 3% 정도로 학교유형에 상관없이 비슷한 편이었다.

<표 20> 가계곤란수준과 교우관계에서의 일탈행위 수준

교우관계의 일탈행위		가계곤란수준(0~2)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N)
폭행	전혀 안한다	0.135	0.385	3369
	가끔 한다	0.131	0.394	198
	자주 한다	0.192	0.567	26
절도	전혀 안한다	0.135	0.385	3369
	가끔 한다	0.188	0.498	191
	자주 한다	0.130	0.457	23
조롱	전혀 안한다	0.132	0.383	2979
	가끔 한다	0.167	0.429	532
	자주 한다	0.169	0.477	71
왕따주도	전혀 안한다	0.138	0.393	3134
	가끔 한다	0.137	0.390	416
	자주 한다	0.121	0.415	33
경찰연행	전혀 안한다	0.136	0.388	3444
	가끔 한다	0.203	0.511	123
	자주 한다	0	0	15

주 1) 교우관계의 일탈수준: 설문응답자와 가장 가깝게 어울리고 있는 친구들의 행동

- 2) 가계곤란수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주택임대비의 연체 경험
- 3) 3점 척도(0-2): 괜찮음(0), 약간 곤란(1), 상당히 곤란(2)
- 4) 열(column)=100%

<표 20>는 가계곤란수준에 따른 교우관계의 일탈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가계곤란수준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주택임대비 등을 연체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한번도 없을 경우 “괜찮음(0)”으로, 가끔 있을 경우 “약간 곤란(1)”으로, 자주 있을 경우 “상당히 어려움(2)”으로 척도화하여 집단별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폭행의 경우, 가까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자주 폭행을 저지를 경우 가계경제수준이 평균 0.192값을 나타내면서 가끔 폭행을 저지르는 집단의 0.131점, 전혀 저지르지 않는 집단의 0.135점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가계수준이 현저하게 곤란한 청소년들은 가까이 어울리는 교우관계에서 폭행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절도의 경우, 가까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절도행위를 가끔 한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가계곤란점수가 평균 0.188점으로 나타나면서 절도를 전혀 저지르지 않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청소년들의 평균 점수인 0.135점 및 자주 저지르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청소년들의 평균점수인 0.130점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조롱행위에서는, 가까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자주 조롱행위를 저지를 경우 평균 가계곤란 점수가 0.169점으로 나타났고, 한편 가끔 조롱행위를 저지를 경우 평균 0.167점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체로 교우관계에서 조롱행위가 자주 나타나는 청소년일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가계수준이 곤란한 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왕따주도에서는 다른 폭력군과 달리 교우관계에서 왕따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은 집단에서 평균 가계곤란 점수가 높아지지 않음으로써 가계곤란 여부와는 상관이 없이 발생되고 있는 폭력유형을 암시하였다. 경찰연행의 경우, 가까이 어울리는 친구들이 가끔 경찰에 연행되는 청소년 집단에서는 평균 가계곤란 점수가 0.203점으로 나타나 경찰연행이 전혀 없는 집단의 평균 0.136점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타났다. 따라서 가까이 어울리는 교우관계에서 경찰연행이 빈번하게 나타나는 청소년들은 평균적으로 가계경제에서의 곤란을 겪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6. 성관계 경험

<표 21> 인구학적 특성별 성관계 경험

인구학적 특징		있음	없음	전체
성별	남자청소년	82 (4.52%)	1,732 (95.48%)	1,814 (100.0%)
	여자청소년	44 (2.54%)	1,687 (97.46%)	1,731 (100.0%)
지역크기	대도시	113 (3.83%)	2,837 (96.17%)	2,950 (100.0%)
	농산어촌	16 (2.48%)	628 (97.52%)	644 (100.0%)
학년	중학교 1학년	3 (0.62%)	481 (99.38%)	484 (100.0%)
	중학교 2학년	8 (1.01%)	788 (98.99%)	796 (100.0%)
	중학교 3학년	6 (1.20%)	492 (98.80%)	498 (100.0%)
	고등학교 1학년	24 (2.98%)	781 (97.02%)	805 (100.0%)
	고등학교 2학년	87 (8.64%)	920 (91.36%)	1,007 (100.0%)
전체		129 (3.59%)	3,465 (96.41%)	3,594 (100.0%)

주 1) 행(row)=100%

<표 21>은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과 경험이 없는 청소년 집단을 나누어 인구학적 범주별로 나누어 집계한 것이다.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 전체 남자청소년 중 4.52%(82명)가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여자청소년의 2.54%(44명)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지역크기별로는 대도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중 약 3.83%(113명)가 성관계를 맺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농산어촌에 거주 중인 청소년에 해당되는 2.48%(16명)에 비해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다. 학년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성관계 경험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중 1이 0.62%(3명), 중 2가 1.01%(8명), 중 3이 1.20%(6명)로 비교적 낮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에 고 1이 2.98%(24명), 고 3에서는 8.64%(87명)까지 치솟는 등 주로 고등학교 고학년에서 성관계 경험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2> 재학 중인 학교유형별 성관계 경험

학교유형		있음	없음	전체
학교구분 1(교육과정)	중학교	18 (1.01%)	1,763 (98.99%)	1,781 (100.0%)
	일반계고	49 (3.94%)	1,194 (96.06%)	1,243 (100.0%)
	전문계고	62 (10.88%)	508 (89.12%)	570 (100.0%)
학교구분 2(성별)	남녀공학	96 (3.44%)	2,697 (96.56%)	2,793 (100.0%)
	남학교	20 (5.06%)	375 (94.94%)	395 (100.0%)
	여학교	13 (3.20%)	393 (96.80%)	406 (100.0%)
전체		129 (3.59%)	3,465 (96.41%)	3,594 (100.0%)

주 1) 행(row)=100%

<표 22>은 조사청소년이 재학 중인 학교유형별로 성관계 경험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중학교에서는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의 비율이 1.01%(18명)에 그친 반면 일반계고에서는 3.94%(49명), 전문계고에서는 10.88%(62명)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 나타나 주로 전문계고 청소년 사이에서 성관계 경험이 높게 나타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성별 학교유형의 경우에는 큰 편차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남학교가 5.06%(20명)로 제일 높았고 남녀공학이 3.44%(96명), 여학교가 3.20%(13명) 순이었다.

<표 23> 가족구성원 특징별 성관계 경험

가족구성원 특징		있음	없음	전체
부모 동거	양친	96 (3.15%)	2,956 (96.85%)	3,052 (100.0%)
	아버지만	10 (6.45%)	145 (93.55%)	155 (100.0%)
	어머니만	10 (3.92%)	245 (96.08%)	255 (100.0%)
	둘 다 없음	10 (11.11%)	80 (88.89%)	90 (100.0%)

주 1) 행(row)=100%

<표 24> 아버지의 교육수준별 성관계 경험

아버지의 교육수준		있음	없음	전체
아버지의 교육수준	대졸이하	70 (4.39%)	1,524 (95.61%)	1,594 (100.0%)
	대졸이상	53 (2.86%)	1,799 (97.14%)	1,852 (100.0%)

주 1) 행(row)=100%

<표 25> 가계경제수준별 성관계 경험

가계경제수준		있음	없음	전체
가계경제수준(1):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주택임대비 등의 체납경험	없다	99 (3.17%)	3,024 (96.83%)	3,123 (100.0%)
	가끔 그렇다	19 (5.21%)	346 (94.79%)	365 (100.0%)
	자주 그렇다	8 (12.31%)	57 (87.69%)	65 (100.0%)
가계경제수준(2): 정부기관, 종교단체, 복지기관으로부터 지원수급 경험	없다	111 (3.40%)	3,150 (96.60%)	3,261 (100.0%)
	가끔 그렇다	11 (5.39%)	193 (94.61%)	204 (100.0%)
	자주 그렇다	4 (4.40%)	87 (95.60%)	91 (100.0%)
가계경제수준(3): 공과금 (수련활동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 체납 경험	없다	103 (3.18%)	3,137 (96.82%)	3,240 (100.0%)
	가끔 그렇다	15 (5.91%)	239 (94.09%)	254 (100.0%)
	자주 그렇다	8 (13.33%)	52 (86.67%)	60 (100.0%)
전체		129 (3.59%)	3,465 (96.41%)	3,594 (100.0%)

주 1) 행(row)=100%

<표 23>는 응답자의 가정환경의 특징별로 성관계 경험의 유무를 집계한 것이다. 부모와의 동거형태에서는 양친 모두와 동거하는 청소년의 경우 3.15%가 성관계 경험이 있었고 아버지만 동거할 경우 6.45%, 어머니만 동거할 경우 3.92%,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을 경우 11.11%가 성관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특히 부모님과 함께 동거하지 않는 청소년 일 경우 성경험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표 24>의 아버지의 교육수준에서는 아버지의 학력의 대졸이하일 경우가 4.39%, 대졸이상을 경우 가 2.86%의 청소년이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대체로 아버지의 학력

수준이 낮을 때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이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표 25>의 가계경제수준에서는 대체로 가계형편이 곤란할수록 성관계 경험을 가진 청소년의 비율 역시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거주 중인 가계에서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주택임대비 등을 체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경우 가끔 체납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21%, 자주 체납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2.31%가 성관계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일반가계의 경험율인 3.17%보다 높게 나타났다. 정부기관, 종교단체, 복지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수급 경험의 여부에서는 가끔 그런적 있는 가계의 청소년은 5.39%, 자주 그런 적 있는 가계의 청소년은 4.40%의 경험율을 나타내었고 이는 일반가계에 거주중인 청소년의 3.40%에 비해 높은 수치이다. 마찬가지로, 공과금(수련활동비, 급식비, 체험학습비 등)의 체납경험에서는 가끔 그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5.19%, 자주 그런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3.33%가 성관계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이는 일반가계의 경험율인 3.18%에 비해 높은 수치라는 점을 확인하게 해주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 남자청소년이 여자청소년에 비해 협박, 폭행, 금품갈취, 집단따돌림 등의 학교폭력 피해에 더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학교유형과 학년별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학교폭력 피해발생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에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중학교에서의 피해율이 14.10%(249명)로 고등학교이니 일반계고의 4.48%(55명), 전문계고의 5.16%(28명)에 비해 약 3배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 3) 부모와의 동거유형을 살펴보면, 학교폭력의 피해율이 크지는 않지만 1~3%에서 유형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가장 두드러진 부분은 어머니하고만 동거할 경우 12.11%(31명)로 가장 높은 피해율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아버지와 동거할 경우(10.49%, 15명), 부모 두 분 모두 존재하지 않을 경우(10.34%, 9명) 순으로 나타났다. 양친 모두와 동거할 경우는 9.10%(274명)로 여러 동거형태 중 피해발생율이 가장 저조하였다.
- 4) 가족의 경제적 상황과 학교폭력의 관계를 보면, “전기세, 가스비, 수도비, 주택임대비 등의 체납경험”에서는 자주 체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13.64%가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였으며 가끔 체납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에서는 10.77%가, 전혀 곤란을 겪지 않았던 청소년 중에는 9.03%가 피해율로 집계되면서 가계경제수준과 학교폭력 피해율은 서로 반비례 관계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발표 2 ■

학교폭력에 대한 성인지적 대응 방안:
피해자 지원체계 현황 및 개선방안

이 미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면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¹⁾

이처럼 학교폭력의 범위는 포괄적이다. 공간적으로 학교내부 뿐만이 아니라 학생간 학교 밖 공간에서 이루어진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하고 있다. 폭력의 특성도 언론에서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폭행, 상해, 협박, 따돌림뿐만 아니라, 성폭력과 음란정보에 의해 타인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도 포함시킨다. 청소년 거의 대다수가 학교에 재학중이기 때문에, 학교폭력 문제는 청소년 문제이기도 하다.

최근 죽음이나 자살을 불러일으키는 정도의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 관련 대책의 미흡에 대한 반성과 대책 마련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개선해나가는 것은 중요한 작업인데, 이와 관련하여 성인지적 관점에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의 피해는 성별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특히 성폭력이나 본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성행위의 결과는 남녀에게 큰 차이를 보여준다. 본 절에서는 지원체계의 성인지성에 대해서 논의하려고 한다.

청소년기 학생을 위한 지원기관은 다양한데, 중심을 구성하는 것이 Cys-Net과 Wee 센터이다. 청소년기 학생을 위한 다양한 지원체계를 검토하고, 이들 두 지원체계의 성인지적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논의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폭력 피해 학생 청소년 지원기관

학교폭력 중 여학생이 특히 취약하고, 또 피해의 결과가 심각한 종류의 폭력은 성폭력과 성매매로 볼 수 있다. 학교폭력의 형태를 띠는 성매매는 학교 친구나 선후배의 강요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피해에 노출되어 있는 학생 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관은 아래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다.

<표 1> 폭력 피해 학생 청소년 지원기관

대상 기관	현황	개소	주요내용
CYS-net	·전국 170개	170개	상담을 통해 문제를 평가한 뒤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 내 각종 서비스를 연계해서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지원네트워크
Wee센터	·Wee 클래스 : 2,045개 ·Wee 센터 : 124개 ·Wee 스쿨 : 3개	2,172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종의 통합지원 서비스망
청소년쉼터	·일시쉼터: 10개 ·단기쉼터: 49개 ·장기쉼터: 26개	85개	가출청소년에 대한 일시적인 생활지원, 상담 및 심리치료, 가정·사회복귀, 중장기적인 자립지원
청소년 성문화센터	·전국 38개	38개	시청각적, 참여적 성교육 및 실천지침 성격의 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왜곡된 성문화에 대한 재조명 및 대안 마련
청소년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전국 14개	14개	성매매 피해여성의 보호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여 성매매 재유입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 도모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249개 ·성폭력상담소: 194개 ·성매매피해상담소: 27개	470개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상담 및 지원, 조사연구 등
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64개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19개	83개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 인도, 예방교육, 일시보호, 직업훈련 등을 통한 보호
원스톱 지원센터	·전국 17개	17개	피해자상담, 의료, 법률, 수사통합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전국 17개	17개	피해자 긴급구호, 시설연계 지원
미혼모자시설	·전국 32개	32개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 일정기간 아동의 양육지원이 필요한 여성에게 분만과 숙식보호 지원
합계		3,098개	

학생 청소년을 성폭력, 성매매 위협으로부터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폭력으로부터 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한 가지는 청소년 일반이 당면하는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소년 관련 기관이고 다른 한 부류는 성폭력, 성매매, 임신과 같이 여성청소년이 고유하게 부딪히는 문제에 대한 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후자의 기관이 여성청소년에게만 특화된 것도 있지만, 여성 일반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전자의 예로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라는 개념하에 청소년에게 상담, 구조, 보호를 제공하는 기관들과 ‘학생위기상담종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Wee 프로젝트와 관련된 기관이 있다. 이들 기관의 특징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면서, 청

소년들이 당면한 다양한 위기상황에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CYS-Net은 전국적 구축된 연계망을 통해서 어려움에 당면한 청소년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Wee 센터는 교육청 및 학교와 긴밀하게 연계를 갖고 학교 및 학부모가 의뢰한 청소년에게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 유형의 기관은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고 청소년 접근도가 상대적으로 뛰어나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문제점은 여성청소년이 고유하게 당면하는 성폭력, 성매매, 임신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상담과 도움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경험이 많지 않다. 어느 한 가지 종류의 기관이 청소년이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성(性) 문제가 성장기 남녀 청소년 모두의 폭력 및 일탈의 기저에 자리잡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여성청소년과 남성청소년이 당면하게 되는 상황이 판이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기관이 성문제와 관련된 청소년, 특히 여성청소년 지원에 더 전문성을 축적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성문제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따로 존재하지만, 이들 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위해서도 CYS-Net이나 Wee 센터가 더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유형의 지원기관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원스톱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 미혼모자시설로, 여성청소년이 당면할 수 있는 고유한 위기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기관들이다. 이들 기관이 전국적 청소년 지원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CYS-Net이나 Wee 센터와 긴밀하게 연계해서,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이나 위기관련 서비스를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CYS-Net)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위기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5년 청소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을 주요정책과제로 추진하며 시작하게 되었다. CYS-Net (Community Youth Safety-Net) 사업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Network)”이다. 16개 시도 170개 시군구에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며, 이 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의 발견과 보호에 필수적 구성기관인 학교·교육청, 노동관서, 국공립의료기관, 보건소, 청소년쉼터, 청소년지원시설을 필수연계기관으로 지정하여 연계·협력을 강화한다.

CYS-Net은 이러한 지역사회연계망을 통하여 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보호하며 상담, 정서적지지, 경제적 지원, 의료·법률·자립지원, 시설보호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연계사업을 실시

함으로서 청소년사회안전망 및 보호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2011년부터는 위기청소년사회안전망 발굴·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학교-지역사회를 연결하여 장기결석·학업중단 청소년 정보를 학교(교육청)에서 CYS-Net로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인프라를 더욱 확충하여 2013년에는 248개소로 시군구별 1개소씩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CYS-Net에 대한 청소년이용수도 2006년에 2만명에서 2010년에는 12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에 비해 부족한 운영인력과 연계기관간의 협조부족 등으로 각 센터별 상담 대기기간이 길어지고, 적극적인 위기사례 발굴 및 각각의 사례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주: 여성가족부(2011), 2011년 청소년사업안내서

<그림 1> CYS-Net 체계도

나. Wee 프로젝트

학생위기상담종합지원서비스 Wee프로젝트는 점차 개인, 가족, 교육적 위기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증가하고 학업중단과 교육소외에 놓여진 학생들이 이러한 위기에 중복적으로 노출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단위학교차원을 넘은 종합적인 안전망에 대한 필요가 대두되었다. 이에 2007년 12월에 ‘Wee 프로젝트’에 대한 정책안이 도출되고 2008년에 ‘학교안전통합시스템’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Wee는 ‘We(우리들)+Education(교육)’, ‘We(우리들)+Emotional(감성)’의 합성어로서 “학교,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들의 건강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지원하는 다중의 통합지원 서비스망”이다.



주: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홈페이지(www.wee.go.kr)

<그림 2> Wee 프로젝트 체계도

Wee는 총3차의 안전망으로 구축되어 있는데 1차안전망은 단위학교의 Wee스쿨, 2차안전망은 지역교육청의 Wee센터, 3차안전망은 시·도교육청의 Wee스쿨(기숙형장기교육센터)이다. 현재 전국에 Wee센터 124개, Wee클래스 2,045개, Wee스쿨 3개가 운영되고 있다. Wee는 이러한 총3차에 걸친 다중안전망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습부진치유, 위기학생선도, 진로개발, 잠재력 발현으로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지역사회의 공공기관, 복지기관, 보건의료기관 등의 전문기관과의 연계서비스망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목적달성을 하고자 한다.



주: 한국교육개발원 Wee프로젝트 연구특임센터 홈페이지(www.wee.go.kr)

<그림 3> Wee 서비스 네트워크

Wee프로젝트 사업은 시설 및 인력 등 관련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상담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이상선(2011)에 의하면 Wee프로젝트가 2010년도 전국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수를 전년 대비 3,849명 감소하는데 기여함으로써 그동안 지속적으로 학업중단학생비율이 증가하여 2009년도에는 전체학생 대비 1.35%까지 증가했던 상황을 2010년도에 1.27%로 다시 감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Wee프로젝트 사업은 아직 법적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법제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전문상담교사의 증원 및 신분의 안정화, 인력의 전문성 차이 등 여러 가지 해결해 나가야 할 사안들을 안고 있다.

3.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기관 분포 현황

가. 청소년 인구대비 지원기관 수

폭력 피해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려고 한다. 아래 표에는 전국 광역시도별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지원기관의 비율이 제시되어 있다. 기관의 유형을 A와 B로 분류하였는데, A에는 Cys-Net, Wee 센터, 청소년 쉼터가 포함되고 B에는 청소년성

문화센터, 청소년성매매지원시설, 미혼모관련시설,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가정폭력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가 포함된다. A 유형의 기관들은 청소년 일반이 당면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는 곳이고 B 유형은 여성청소년에 고유한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A 유형의 기관들은 경기도에 66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그 다음은 서울로 41개소 이다. B 유형의 기관도 경기도에 124개소로 가장 많이 위치해 있고, 서울에 94개소가 있다. A와 B 유형을 합한 경우 경기도에는 총 190개소, 서울 135개소, 경남 80개소, 충남 69개소 분포하고 있다.

<표 2> 청소년인구 10만명당 청소년지원시설 수

(단위: 명, 개소)

행정구역별	구분	시설수 (개소)	청소년인구 10만명당 시설수(개소)	청소년인구수 (13-18세, 명)
서울특별시	A	41	5.59	733,415
	B	94	12.82	
	A+B	135	18.41	
부산광역시	A	15	5.39	278,076
	B	32	11.51	
	A+B	47	16.90	
대구광역시	A	10	4.51	221,485
	B	19	8.58	
	A+B	29	13.09	
인천광역시	A	21	8.88	236,593
	B	26	10.99	
	A+B	47	19.87	
광주광역시	A	8	5.53	144,549
	B	36	24.91	
	A+B	44	30.44	
대전광역시	A	10	7.30	136,970
	B	20	14.60	
	A+B	30	21.90	
울산광역시	A	9	8.56	105,165
	B	13	12.36	
	A+B	22	20.92	
경기도	A	66	6.68	988,061
	B	124	12.55	
	A+B	190	19.23	

행정구역별	구분	시설수 (개소)	청소년인구 10만명당 시설수(개소)	청소년인구수 (13-18세, 명)
강원도	A	19	15.91	119,415
	B	25	20.94	
	A+B	44	36.85	
충청남도	A	31	18.66	166,107
	B	38	22.88	
	A+B	69	41.54	
경상남도	A	33	12.12	272,301
	B	47	17.26	
	A+B	80	29.38	

주: 통계청 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

1. A= CYS-net, Wee센터, 청소년쉼터, B= 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시설, 여성긴급전화1366, 가폭·성폭피해자보호시설, 가폭상담소, 성폭상담소, 원스톱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2.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시설 수는 2010년 5월말기준, cys-net, wee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문화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원스톱지원센터, 미혼모자시설 시설수는 2011년말 기준, 청소년성매매피해지원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시설수는 2011년 2월말 기준, 청소년 인구수는 2010년 기준임.

청소년 서비스 접근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는 많은 요소가 있지만, 청소년 인구당 개소수는 접근성을 보여주는 좋은 지표이다. 물론 접근성을 논의할 때 해당 시도의 지역적 광범위함도 함께 고려해야 하지만 본 자료에서는 인구당 개소수만 살펴보았다. A 유형 기관의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개소수는 경남12.1개소, 충남 18.7 개소, 강원 15.9개소로 도지역이 광역시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B 유형의 경우는 광주광역시 24.9개소, 강원도 20.9개소, 충남 22.9개소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와 B 유형을 합한 지원기관의 청소년 인구 10만명당 개소수는 강원 36.9개소, 충남 41.5개소, 경남 29.4개소, 광주 30.4개소, 울산 20.9개소로 여타 지역에 비해서 높게 나타났다.

나.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기관의 공간적 분포

아래 그림은 서울시 25개구 여성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 기관의 공간적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구별 분포가 고르지는 않은데, 청소년에 특화된 시설인 Cys-Net, Wee 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성매매지원시설, 청소년성문화센터의 분포는 구로구, 성북구, 강서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서대문구, 광진구에 많으며, 구역별로는 여타 지역에 비해 서울 서남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성문화센터	△	가정폭력상담소	●	여성긴급전화1366	◆
	청소년성매매지원시설	○	가정폭력보호시설	■	미혼모자시설	▼
	cys-net	□	성폭력상담소	▲	성매매피해상담소	●
	Wee센터	◇	성폭력보호시설	★		
	청소년쉼터	☆	원스톱지원센터	♥		



<그림 4> 서울시 청소년 지원기관의 공간적 분포

4.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에 있어 성인지성 부족

가. 청소년 지원체계의 성인지성 부족

우리사회 청소년지원체계의 주요 축을 이루는 것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과 학교를 중심으로 형성된 Wee 프로젝트이다. 이 두 가지 지원체계는 가장 전국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이들 두 지원체계의 설립과 확대가 그동안 방치되었던 청소년들의 문제를 드러내고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의 성별로 당면하는 문제가 접근방식이 상이함을 고려할 때, 이들 두 지원체계는 아직 여성폭력 피해청소년 보호와 지원에 있어서 아직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 성(性) 문제가 청소년의 문제행동 이면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아직 성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다.

지금 학교, Wee센터 내에서 아이들이, 성매매는 아니더라도, 임신을 해도, 초반기의 경우에 연계해주면 받아줄 기관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Wee센터 내에서는 그 문제 감당 못하거든요(서울지역 교육연구기관종사자, 남51세).

네, 저희는 청소년지원센터고요. 사실은 청소년 상담이 의뢰되었을 때는, 저희는 성폭이나 이런 문제로 의뢰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1388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거의 없는데, 상담을 하다보면, 아이들의 문제가 사실은 그게 주 문제는 아니었는데, 얘기하다 보면... 근친... 부모나 형제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친구들도 있었고요. 남자친구하고나, 이는 오빠... 이렇게 해서 임신이 되었다... 상담하는 중에, 그런 게 문제가 돼서... 성폭력으로 직접 오거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가정폭력으로 와서, 잘 들어보니 부친이나 큰아버지한테 성폭을 당했다... 오픈하는 것은 사실 학생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자기는 안 받겠다... 차단을 당한 적은 있었고요. 상담하 드러내는 분 계세요.(서울지역 CYS-Net종사자, 여38세).

성(性)과 관련된 이슈나 문제는 아직도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 상담현장에서 공개적으로 논의되기를 꺼리는 주제이다. 교우관계나 학교폭력, 성적부진 등의 문제로 상담을 진행하다가 성과 관련된 이슈가 드러난다.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문제유형이기에 청소년상담센터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 하지 않는 것 같다.

아이들이요? 그거는 성.. 나쁜 쪽으로 말을 하게 되면 나쁜 쪽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아이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가정폭력에서 성폭에 대한 부분들도 좀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는 거의 적구요. 친구관계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남자친구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성 관계 이런 것들도 저희는 좀 많이 오죠. 전 단계죠. 저희는 성폭이나 가폭 전에 남친이나 여친이랑 어떻게 했는데, 관계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 같아요. 내가 어저께 내가 남자친구랑 했는데 임신을 할까요? 남자친구가 또 전화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성관계 했는데 우리 여자친구가 임신할 수가 있나요? 가능성이 있나요? 물어보기도... 직접... 일반 상담을 오더라도 이제 상담을 계속 하다보면 그 안에서 학폭이라든지 가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죠. 그리고 어쨌든 문제가 발생하면 그런 성관계랑 이런 것들도 어쨌든 연관이 되어있긴 하거든요(서울지역 CYS-Net종사자, 여31세).

물론, 단일 기관이 청소년이 요구하는 문제에 대응할 수는 없기에, 여타 청소년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요구된다. 원스톱지원센터와 같은 기관에 연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차적 위기 지원을 받은 청소년은 이후 지속적 상담 및 사례관리가 필요하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널리 홍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성폭력이나 성문제에 자체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여성청소년의 안전을 위협하는 주요요인인 성폭력과 성매매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청소년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때문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현재 우리 cys-net 안에서 지역에서 사실은 경찰청이 갖고 있는 원스톱지원센터 같은 것들이 더 들어와주면 좋죠. 지역으로 왜냐하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학교나 가정이나 이런 부모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잠재되어있다고

보고,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형태로 가야되지 않나 그런 생각인데, 지금 cys-net 중심으로는 지역마다 이런 영역을 하는 일이 거의 없다고 봐야죠(서울지역 CYS-Net종사자, 남44세).

동반자들 스스로 이쪽에[성폭력, 성매매] 대한 인식이 너무 부족해서, 성폭 피해나 성매매 아이들 못 다루는 거예요. 버겁고 이 단체에서, 여성단체 이쪽에서 피해자 지원시설에서 Cys-net을 힘들어 하는 이유가... 거기는 너무 감이 없다, 이거예요. 이쪽 애들에 대한 감... 그리고 여성의식도 없고 배경이 좀 다르니까.(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종사자, 여45세)

나. 성인지적 청소년 사업의 중요성

주요 청소년 지원체계의 성인지성이 부족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성매매와 같은 여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청소년의 문제와 욕구에 초점을 맞춘 사업이 있기도 하다. 10대 성매매 여성청소년의 현실에 맞는 탈성매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서울의 한 기관의 서비스에 대해서 국내외적 평가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성청소년의 문제와 욕구에 초점을 맞춘 이러한 사업은 사업중복이라는 이유로 도전을 받는다.

유엔에서 [상위] 받았을 때도 성인지적인 관점의 청소년 사업이다라는 것에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같은 가출 청소년사업이라도 머슴아도 조사해 봐도 먹을 거 호소해도 첫 번째로 여성들은 편히 잘 수 있는 곳. 이런 쪽으로 욕구베이스가 다르다고 생각해 해요. 그랬을 때 어떤 사업을... 저희도 청소년과가 있기 때문에 계속 도전을 받습니다. 왜 여성을 따로 분류해서 하느냐 함께 하지 그런 도전을 10년 동안 받아왔고 10년 동안 응전을 해온 거거든요. 그건 마치 여가부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지만 따로 놓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청소년사업을 성인지적인 관점으로 다 통합하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젠더관점이 안 들어가 있으면 10대 여성의 정말 더 특수하고 전문적인 촘촘한 서비스를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당초 성인지 관점을 갖고 사업을 하는 그런 것을 저희의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고 그것이 국제적으로도 인정을 받은 건데 국내에서는 이것이 확산되기에는 참 많은 도전이 있다고 느낍니다(서울지역 성매매관련기관종사자, 여51세).

저희가 위기 10대 여성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청소년 쪽과 자꾸 중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매매 청소년을] 길거리에서 직접 만나는 상담을 하거든요. 우리는 10년 동안 대표사업으로 했어요. 그것을 가장 빠르게. 그런데도 그쪽에서 하는 거리 상담이 같다고, 중복이라고, 해마다 예산 철마다 싸우는 거예요... 여기부도 아파 모든 부서가 그런 중복 논쟁과 피할 수 없을 거예요. 여가부의 존재 이유 자체가, 정책성 자체가... 저희가 이제, 10대 여성의 특별한 위험 상황이 있잖아요? 성매매 이것은 같은 가출 10대라도, 남성들은 좀 덜 하잖아요? 여기는 거의 여성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니까, 소위 여성부의 기본 관점이 성인지적인 관점이라고 보면, 10대 이 청소년에 대해서도 그 관점이 스며들어야 된다고 기대를 하고, 마땅히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가부 안에서도 이 청소년자립지원과의 관점과 또 여성정책 권익지원 이쪽의 관점... 이런 것들이 서로 달라지면, 어떤 사업이 정말 이 10대 여성에게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기준도 다를 것이다 (서울지역 성매매관련기관종사자, 여51세).

다. 청소년 임신, 낙태, 출산 위기에 대한 대처 미흡

성별을 넘어서 청소년이 당면하는 가장 큰 위기는 임신, 낙태, 출산이다. 이러한 문제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연루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경우 여성의 문제로 귀결된다. 여성청소년이 경험하는 임신, 낙태, 출산의 부담과 부정적 영향은 성인 여성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청소년의 신체적 성숙이 빨라지고, 성적표현과 행위가 과거보다 자유로워지면서 이들의 성관계 및 계획하지 임신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성교육 현실은 여성청소년의 위기 대처 능력을 키우기에는 한 없이 미흡하다.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성교육의 결과로 여성청소년의 임신, 낙태, 출산의 위험은 높아진다.

임신, 낙태, 출산 위기에 있어서 예방이 부족한 것뿐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이후 이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대개의 경우 미혼모시설은 출산 직전에 입소가 가능하며 출산 후 2개월이나 3개월 정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이다. 태아 및 출생아의 건강 및 청소년 산모의 건강을 지원하는 체계가 미흡하다.

[10대 청소년이 임신] 15주, 20주 넘은 상태에서 발견이 돼서, 엄마 통해서도 올 수도 있지만, 아이들 통해서... 낙태를 원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낙태를 해줄 수 있는 기관이 없거든요... 지금 아이들 같은 경우, 저희 센터로 와서 미혼모로 가는 그 시기를 보면, 거의 출산 직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만삭이 되었는데도 빈혈부터 시작해서 너무 건강상태가 열악한 상태로 가요. 그러면 출산하고 나서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도 많이...(서울지역 1366종사자, 여46세).

[청소년 임신부가] 집에 있을 경우, 자기 집에서 자기[지역] 보건소 못 가는 거죠. 아이가. 그래서 돈 없어서 병원은 더더구나 못 가고. 보통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80~90%는 해체 가정 자녀들이거든요.(서울지역 청소년쉼터종사자, 여56세)

청소년에게 낙태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다수 선진국에서 여성의 출산 결정권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못하다. 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관습적 허용의 분위기 하에서 낙태는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작년부터 실시된 낙태 단속으로 청소년의 임신이 출산으로 이어지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의 낙태 관련법의 고찰이 요구된다. 10대 산모 다수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데, 입양은 생모와 입양아에게 평생에 걸친 상실의 상처를 제공한다는 연구가 있다. 청소년이 임신과 출산의 위기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성교육이 요구된다.

[낙태하는데] 400만원까지도 부른다고 해요. 월수가 차면. 이런 상황이나 몰려서 낳기는 낳는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낙태에 대해서 불법성만 얘기하지 지원하는 방식이 없어요. 지금. 호소하는, 10대 여성의, 위기 10대 여성의, 제가 볼 때... 굉장히, 그 위기의 굉장히 큰 부분을 구성하는게 이 임신일 것 같은데. 원치 않는 임신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식일 것이 없고, 그저 저출산 대책으로 미혼모 학교... 그냥, 그렇게만 하게 되어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서울지역 성매매관련기관종사자, 여51세).

5. 성교육 강화를 통한 성폭력 예방

가. 성가치관의 정립을 통한 문제 성행동 예방의 중요성

급속하게 신체적 성숙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기에 성이슈는 이들의 학습, 교우관계, 교내외 행동의 저변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학교 현장이나 청소년 지원 기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교육이 제공되는 것은 지극히 주변적인 영역에 머물고 있다.

사실 개인적으로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 성에 관련한 문화나 성문제가 굉장히 아주 주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특히 남자청소년아이들의 경우에도 중1,2학년 사이에 제2차 성장이 나타나고 이 욕구를 해결하지 못해서 오토바이든 범죄로도 많이 나타나고 틀림없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올바른 가치관이나 성의식, 성지식, 이런 것도 다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아직까지 학교에서의 교육 또는 이런 아마도 그래도 많이 변화해서 내일여성센터도 생기고, 아하 성문화센터도 생기고, 이런 창동과 같은데도 생기고 있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공격적서비스의 한계가 있고 보편적서비스의 한계가 있으나 그러나 아이들한테, 몇몇의 아이들이라도 이것의 영향을 받아서 좀 도움이 되고 이럴 수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아이들이 피부로 다가올 만큼이지않다. 지금. 그리고 만약에 현재와 같은 성문제를 봤을 때 성폭력상담소가 6개 이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다. 저는 이 얘기 드리고 싶어요(서울지역 청소년단체종사자, 여46세).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기는 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형식적이다라는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사실은 좀 적어도 개별화교육은 못하더라도 학급단위만이라도 정해진 시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진행된다면 좋은데, 집단에 대한 교육이 대부분이거든, 현실은 몰아놓고, 또는 그냥 학급에 있는 TV를 통해서, 뭐 그냥 이런 식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이고요...(서울지역 교육청종사자, 남50세).

교사들이나 지역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들은 교실내나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에서 청소년들 간의 부적절한 성적표현이나 행동에 대해서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다.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등 성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이들의 행동은 성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있다.

음, 교실에서, 이제 여학생들은 주로 점심시간에는 여학생들이 다 밖에 나가고 남학생들만 있는다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간다든지, 하얀튼 자기들끼리 있는 공간에서, 아니면 친구네 빈 집에 가서 거기서 음란물 보며 같이 즐긴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여학생들, 남학생들 같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 같은 방에 같이 어떤 애는 집에 가서 같이

음란물 보고, 그러다가 계속 몇 번 반복적으로 지속되다 걸리면 그게 놀이까지 되면서...(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여45세).

학교폭력과 결합되어서, 어떤 집단의 힘에 의해서 한 아이를 괴롭히는 이런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그런 피해자가 경계선장애, 이런 아이들이, 이제 하는데, 이런 식인 거죠. 경계선장애 같은 경우에는, 개는 평상시에는 자기한테 관심도 없는 애들이, 그 시간만 되면 자기를 보고 즐거워하고 웃고 떠들고 하나까, 자기도 자기 몸을 만지니까 재미있고, 그러니까 개는 그 상태로 즐기는 것이고, 또 남자애들은 그것을 보면서 재미있고, 깔깔거리고 웃고, 그게 음란물에서 봤던 것과 정말 그렇게 되나? 이런 게 신기하기도 하나까...(서울지역 청소년성문화센터종사자, 여45세).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성행동은 가족의 빈곤과 부모의 방임으로 강화될 수 있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부모가 장시간 혹은 장기간 집을 비우는 틈을 타서 청소년들은 어른이 없는 집에서 ‘성적 놀이’를 즐기고 있다. 이러한 놀이의 상당 부분에는 청소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부적절한 성행동 및 성폭력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저소득 지역 부모로부터 방임되는 자녀를 위한 특별한 접근이 요구된다.

초등학교, 중학교가 아이들이 [부모님에 의한 방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부모님들이 다 직장을 다니시기 때문에 아이들이 거의 혼자 집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동안에 아이들이 친구들 집에 와서 놀면서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보고 싶은 비디오도 볼 수 있겠고, 인터넷도 할 수 있겠고, 게임도 할 수 있겠고... 여자친구가 여자만 데리고 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또 남자친구도 데리고 올 수 있는 문제도 있겠고... 전에는 아버님이 전화하셨거든요. 성관계 장면을 목격하시고 전화를 하신 적 있었어요. 부모님은 매일 늦게 10시인가 11시에 귀가를 하셨거든요. 그날따라 좀 일찍 하셨어요. 그런 장면을 봐가지고 그렇게 의뢰를...(서울지역 CYS-Net종사자, 여31세).

환경이 그렇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희 지역이 저소득층 가정이 밀집해 있는 지역 중에서 영구임대아파트가 서울시 전체의 25%가 저희 지역에 있어요. 저희 노원과 강서가 제일 많은 지역일텐데, 임대아파트라 함은 11평, 14평 되요. 많은 경우에... 부모가... 한부모 가정이거나 맞벌이 부부가 많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이들에 대해서 방임, 방치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오히려 이 문제[성문제]에 더 노출되어 있고요... 방임이거나 지역 내 환경이거나... 뭐, 이것을 조사해서 이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저는 생각할 때, 성적인, 아까 성적으로, 안전한 지역사회로... 아주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더 불안정하죠. 집도 허술하고요... 심지어 일하러 나가서 밤새서 일하고 오시는 분은 그 집이 아지트예요. 애들끼리. 놀아요. 그 집에서. 밤새워서 케이블TV를 보거나 이렇게 되어도 누가 제재할 수 없고요... 임대아파트 안에는 그런 집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혼을 하고, 엄마는 집을 나가고, 아버지가 지방으로 일을 가시면, 그 집은 완전 분가가 되어서 혼숙장소가 되지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혀 전혀 아이들 사이에 그런 의식이나... 생기기 전이니까 여러 아이들이 거기서 혼숙을 하지요. 그런 문화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서울지역 청소년단체종사자, 여46세).

사실 지역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 대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내의 이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에 성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지역에서 좀 있으면서, 지역으로 기반으로 한 성상담 센터가 있으면서, 예방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직접적으로 개입도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한 거 같아요(서울지역 청소년단체종사자, 여46세).

나. 장애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

지적 장애 청소년은 성폭력에 매우 취약하다. 3급 지적 장애인이나 경계선급에 있는 청소년들이 성폭력에 특히 취약한데, 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어 혼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지만, 자신을 방어하는 능력은 약하기 때문이다. 가까운 사람의 지속적 보살핌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 쉽게 끌리게 되어, 성폭력이나 성매매의 피해를 보게 된다.

주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참 어려운데, 지적장애라든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여자아이들은 성적으로 굉장히,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굉장히 취약하고... 그걸 방어할 수 있거나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고요. 주변 사람들도 사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별로... 혹시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쉬쉬하면서 터부시하지, 그걸 법적으로 어떤 측면을 시켜주고, 그런 태도는 아직까지 덜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취약하게 아이들이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정상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사회적인 보호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지요(대전지역 CYS-Net종사자, 남49세).

그냥 먹고 마시고 이런 것들은 우리와 전혀 별 차이가 없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상황대처능력 이런 게 잘 안 되고... 그리고 이게 어떤 것들이 좀 있냐 하면, 누군가 이렇게 같이 주변에 있어주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준다면, 그 사람들에게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친구 관계가 일단 안 되잖아요. 학교에서 왕따... 뭐, 1차예요. 맞지만 않으면 다행이고...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왕따지요. 친구도 없죠. 가족도 같이 있어줄 사람이 없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와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죠. 그런데 그걸 주로 인터넷을 통해 소통하는 것이고, 그러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나이가, 뭐 머리가 하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오빠라고 부르라고 하면 오빠라고 부를 정도로... [순진하죠]...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피해자들 보면 주로 채팅... 채팅에 의한 피해가 거의 90% 이상... 이게 한 3급 정도... 지적장애 3급 정도... 인터넷 쓸 줄 아니까... 그냥 뭐... 밥 사줄게, 만나자, 놀자, 이렇게 해서 가보면 아저씨들이, 40~50대 아저씨들이 주로 많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그런데 이제 가정환경이 너무 열악한 것이 이제 가장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게 통... 관리가 잘 안 되고... 어머니 혼자 계시거나 이렇게...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게 그 이후에 대한 대책이 실은... 피해 이후... 뭐, 저희들이 법적 지원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그냥 하나의 절차인데...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성교육도 좀 시키고, 이렇게 하지만... 이 아이를 진짜 지속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상담소에서 [제공하기 어렵다](서울지역 성폭력상담소종사자, 여56세).

자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쉽게 피해를 당하는 지적 장애인의 배경에는 이들에 대한 비장애인의 차별이 자리잡고 있다. 통합교육을 받는 학교에서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무시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자신들의 친구로 대해 주었다면 이들의 소외감은 크지 않았을 것이고, 소외감으로 인해 쉽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에게 덜 빠져 들었을 것이다.

네. 학교생활이... 그래서 그 통합교육, 통합교육 하는데, 실제로 이 지적장애인이 학교 내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그

은 진짜 고행이에요. 고행. 부모의 욕심이거나 이래서 일반학교 보내기는 하는데,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너무 커요. 왜냐하면 다 특수학교에 다 같은 장애인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통합학교의 특수반에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원반 수업도 같이 하고, 원반 아이들과 계속 같이 어울려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얘기죠. 부모님들이, 그런데 특수학교를 보내면 장애로 인정을 하는... 우리 애가 중증이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안 보내고 싶고요. 통합학교는 보면, 그래도 우리 아이가 비장애 학교 다니니까 안심은 되는데,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감당을 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장애 부모님들이 가지는 그 고통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서울지역 성평등교육기관종사자, 여44세).

그러니까 특수학교와 통합학교를 조금 구분하셔야 할 것 같고요. 특수학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별로 큰 무리가 없어요(서울지역 성폭력상담소종사자, 여56세).

장애인 대상 성폭력이 사건화 되면 일반대중들은 가해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지만 장애인 성폭력 예방에 보다 효과적인 것은 교육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교육의 대상이 장애 청소년이나 이들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전문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은 비장애 청소년이나 이들의 부모이다. 일반인 사이에 만연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비장애 청소년 부모와 이들 자녀의 인식을 개선하여 장애 청소년을 존중하는 태도를 키우는 것이 장애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포하만 여타 폭력을 예방하는 주요한 수단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 서울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평생교육하는 그 팀에서 뭘 하느냐 하면... 학교의 장애인식을 어떻게 개선하는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타깃층을 어디로 했느냐 하면, 장애 아동도 아니고, 장애아동 부모도 아니고, 비장애아동, 그러니까 청소년의 부모님... 학부모... 학부모를 교육을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아무리 청소년들도 교육을 물론 많이 받...(서울지역 장애여성단체종사자, 여40세).

예. 그런데, 저는 그래서 녹색어머니를 모으겠다고 해서, 제가 한 것은 뭐냐 하면요. 저는 비장애... 성폭력상담소니까. '장애' 자가 안 붙어 있으니깐. 저는 명칭을 성교육으로 나갔어요. 성교육으로 나가서 교장선생님과 모든... 부제는 다 '장애인 성교육'이에요. 장애인... 장애아동 성의 이해이고... 그것으로 저에게 강의 의뢰를 했는데, 교육장의 주제에서 '장애' 자 빼달라고... '성교육'으로 해서 모아달라고 내용은 내가 끌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어머님들이 "장애와 비장애와... 키우는 것은 같네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히려 효과가 되게 많이 좋아...(서울지역 성폭력상담소종사자, 여45세).

장애 청소년 입장에서는 성폭력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한데, 이들로 하여금 성문제와 관련하여 자신의 판단능력을 키우게 하는 것이 교육의 주요 내용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는 장기간에 걸쳐 인적, 물적 자원이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니까, 장애인 교육에서 사실 제일 중요하게 자기 조절능력을 가지게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판단능력과 조절능력을 키워주는게 사실은 성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려면 정말 장기간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보면, 되게 더 충동적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는 것이거든요(서울지역 성평등교육 기관종사자, 여44세).

6. 청소년 지원기관 간 연계

가. 지역사회 청소년 지원기관 연계 현황과 중요성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관이 설립되어 있는데, 기관의 역사, 역량, 분야 등을 고려할 때 어느 단일 기관이 청소년이 당면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런 이유로 기관 간 연계가 중요하다. 현재 청소년 상담과 관련하여 주요 축을 구성하는 Cys-Net과 Wee 센터의 입장에서는 성폭력이나 성매매와 관련하여 타기관과의 연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사업안에서 다양한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양성하고 그 분들이 아이들을 만나가는 사업들을 벌여오고 있고 거기 안에 성이라든가 가정폭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포함이 되어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Wee센터도 별도의 사업으로 만들어졌고, 근데 Wee센터에 있는 관계자들을 작년에도... 저희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으로는 올해 시작이 됐어요, 작년엔 준비가 됐었는데, 실제 이렇게 위기 상황에 놓인 아이들을 만나거나 예방교육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안 돼요. 대부분 학교 안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과 프로그램들을 진행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과부하가 걸려있는 상황인거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연계하면 된다는 실제 그런 자원들은 있지만, 연락을 했을 때 정말 기동성 있게, 내용성 있게, 만날 수 있는 현장에서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현장인력이 없다는 거죠(서울지역 교육청종사자, 여40세).

청소년기관 간 연계의 필요성이 크지만, 지역사회 차원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관련 기관과 쉼터간의 연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혀 안 되어 있는 게... 우리 같은 경우도 금천구예요, 금천구에 예를 들어서 몇 개의 청소년 위기를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금천청소년상담지원센터 있는 것은 확실한데, [저-히 쉼터가] 그쪽과도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전혀. 공조도 안 되고 있고, 그쪽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도 그냥 청소년 쉼터다. 애들 가출하면 오는 곳이다. 이런 것만 알고 있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도 제가 구청에... 위원으로 돼서 들어간다고 하면, 구청 산하에 있는 위기센터, 구청 산하에 있는 청소년시설... 이것만이라도 우리가 한 번 어우러보자(서울지역 청소년쉼터종사자, 여53세).

다양한 영역이 있을 텐데... 아이들이 인터넷 중독도 있고, 또 폭력도, 여러 가지 영역 중에 성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을 담보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 지역사회전문가도 한 학교에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을 다 집중해서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특별히 사실 성문제가 나는 건 아주 긴급하게 당장 급하게 개입해야 하는데 그러기 어렵죠(서울지역 청소년단체종사자, 여46세).

긴급하게 성문제나 성폭력 문제와 관련하여 도움을 제공할 기관이 인근 지역사회 차원에서 연계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멀리서 전문가를 섭외하는 어려움을 경험하는 곳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려움들을 가장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창동에 성문화센터가 있고 거기 도 얘기를 하지만, 예방적인 기능까지 하고 있는 정도이고 그래서 정말 현장에서 긴급하게 일이 발생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을 찾거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원지역에] 내일여성센터의 000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그 분이 주로 저희지역[서울지역]에서 긴박한 아이들을 만나 주고 계시고 그 분을 통해서 선생님 통해서 자문을 받고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서울지역 교육청종사자, 여40세).

나. 청소년 지원기관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

청소년 상담의 주요 지원체계인 Cys-Net과 Wee 센터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공무원들은 효과적인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기관간 연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성과 관련된 문제, 성폭력, 성매매 이슈가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두 기관의 대처는 미흡하다. 기관간 연계의 강화는 두 주요 지원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할 것이다. 현장이나 정부 부처에서 보기에 Cys-Net과 Wee 센터의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이 논의되고 있다. 후자는 학교 영역 내에 있는 청소년, 전자는 지역사회 청소년까지 포함하는 대상의 차이가 있지만 이들이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서비스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의 담당자들은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역할의 분담이나 연계의 강화를 고려하고 있다.

Wee센터가 117개소, 아마, 2011년에 구축되어 있고, 저희는 Cys-net이 2011년도 기준으로 186개소가 아마 설치될 예정인데. 제가 작은 바람이 있다면... 제가 여기서 한 1년 넘게 관여를 했는데, 저희가 MOU를 교과부와... 그러니까 총리 훈령이, 2009년도 11월에 총리 훈령이 만들어지면서. 제가, 필수연계기관이라는 기관 자체를 두고, 그 다음 그 안에 학교지원단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잘 갖춰져서 총리 훈령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희가 교과부와 MOU를 5월 23일에 맺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Wee센터와 Cys-net과 연계를 잘 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잘 하고 있는데, 또 연계가 안 되고 있는 데는 굉장히 안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약간...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겠지만, Wee센터가 학교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폐쇄적이고 오픈하지 않는, 이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Wee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교과부에 계시는 선생님과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만, Wee센터는 예방적인 것을 조금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학생들에게 좀 포괄적인 어떤 서비스 지원을 하고, 저희 Cys-net은 예방적이라기보다는 어떤, 굉장히 문제가 불거진 아이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회복적인 기능에 의해서, 좀 더 양분화해 나가자... 저위험군 아이... 저·중·고, 이렇게 나누자면, 저위험군·중위험군 아이들을 Wee센터가 좀 다루고, Cys-net이 고위험군 아이들을 다루서, 고위험군은 이제 동반자들, 아까 말씀하신 동반자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 게 마땅하다고 보고요.(공무원, 여39세).

각 센터들의 지역사회내 연계 강화를 위해 국무총리령으로 운영협의회와 학교지원단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연계의 노력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저희가 시스템이 바뀌어서 운영협의회와 학교지원단이 구청에서 열어야 되요. 그게 국무총리령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그게 구청의 평가기준에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운영협의회와 학교지원단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평가기준까지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이] 안 하셔요. 굉장히 하기 싫어하셔요. 저희가 진짜 밀고 밀고 밀어야 되거든요. 지금 저희도 두 번을 해야 되는데, 현재 8월인데 못 하고 있어요(서울지역 CYS-Net종사자, 여31세).

제가 지금, 내년부터 Wee센터를 평가하겠다고 그래서 평가지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제가 만들 때, 그 중에 한 항목이 연계기관 연계 및 리더십 발휘한 것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여가부, 보건복지부, 문화부 몽땅 다 Wee센터에다 의뢰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가부 쪽에서는 출석정지학생들, 학업중단학생들 하겠다고 했다가, 학생 모집 방법이 없잖아요? Wee센터에서도 좀 달라고, 정보를 달라, 학생들 연계 해달라, 해서 제가 교육청 가서 Wee센터에만 가면 거기 웬만하면 그쪽으로 보내라, 감당도 못하는 것 끌고 안고 하지 말고, 보냈다가 그쪽에서 어느 정도 치료가 되었다 그러면 다시 받아라, 그런 식으로(서울지역 교육연구기관종사자, 남51세).

Wee 센터의 경우 대다수 청소년이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접근성이 뛰어나다. 학교 내에서 문제를 일으킨 많은 학생들을 학교로부터 의뢰받기에 이들의 업무량이 상당하다. 그만큼 대기줄에서 기다려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는 필요한 서비스 제공이 지연되는 것이다. Wee 센터는 연계를 통해서 과부하 상태인 청소년 대기자 요구를 분산시키면서, 신속하게 청소년에게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 연계노력을 할게요. 하는데, 내부적으로 지금 고민하는 부분이 지금 여기서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부분은 이제 성폭력 이런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것은 고위기상항이라고 보고,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경찰에 신고체제도 갖춰야 되고, 학교에서 만약 이런 사안이 인지가 되면 반드시 저희에게도 보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Wee센터에서 그런 역량이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연계노력을 반드시 하도록 거의 강제규정처럼 지금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노력을 제가 꼭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학교에서 Wee센터에 대한 신뢰도가 되게 높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냐하면 공기관 체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기관은 하나인데 모든 학교에서 물리다 보니까 대기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지금 큰일났다, 말아달라... 4주 기다려야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든 풀 수 있는 방법은 연계노력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Wee센터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것도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강제적으로 작동을 시켜야 되겠다(서울지역 교육청종사자, 남50세).

7. 마무리하며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지원기관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수집된 집단 인터뷰 자료를 통해서 성인지적 측면에서 본 청소년 지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성인지적 측면에서 폭력 피해 청소년 지원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정책 제안을 하려고 한다.

첫째,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와 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Wee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청소년 지원의 주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기관은 단 기간 내 전국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면, 확대되는 과정에 있다. 이들의 특성은 청소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위기 지원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여성청소년의 주요 위기 상황인 임신, 낙태, 출산, 성폭력, 성매매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신체적으로 성적 성숙 과정이 급속히 발생하는 청소년기에 성에 대한 이슈와 문제는 이들의 정체성과 일상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청소년이 의뢰할 성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이런 문제를 갖고 이들 기관을 찾은 청소년의 비율도 낮다. 일선 현장의 교사나 성상담자들은 청소년의 성교육 부족과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성행동 표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청소년 상담 현장에서 성과 관련된 문제적 행동에 대해서 논의가 덮여 있는 듯하다. 물론 이들이 관련 문제를 가지고 오는 청소년을 타 기관에 연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이 관련 이슈에 정통해야 하는 이유는 광범위한 홍보와 함께 전국적 네트워크를 갖추었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이 가장 먼저 접촉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이다. 성폭력이나 성매매와 관련하여 타 기관에 의뢰하여 청소년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이슈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 수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성매매 정책은 예방보다는 피해 발생 이후의 사후대책에 더 많은 자원이 투입되고 있다. 탈성매매 과정이 어렵고 많은 사회적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볼 때, 성교육 및 성매매 예방교육 강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시도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집행은 미미하다. 인터넷 성매매 모니터링을 통해서 성판매 청소년을 상담한 후 지원기관에 연계하고 성매수 행위 남성을 신고하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성매매청소년 지원기관이 실시하는 성매매 모니터링은 좋은 모범사례이다.

셋째, 청소년 성상담 전문가들은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관찰되는 청소년들의 부적절한 성적행동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는 성가치관의 확립과 관련하여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채 놀이의 형태로 성폭력 행동

을 하고 있다.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이 중요하다. 저소득층 지역 청소년들은 근로 등의 이유로 부모가 부재한 집에 모여 성행동이나 성관계를 하기도 한다. 피상적 수준에 머물고 있는 성교육에서 과감하게 탈피해야 한다. 장애인 청소년 대상 성폭력 예방을 위해 비장애 청소년 및 이들의 부모를 대상으로 한 인식 개선 교육이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이들을 성폭력 피해에 취약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넷째, 청소년의 문제행동의 배경에는 문제가정이나 문제부모가 있다.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부모상담이 동반되어야 한다. 부모상담을 통해 부모는 자신이 의식하지 못했던 폭력행사를 인식하는 등 부모상담은 위기 청소년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저소득 빈곤층의 부모상담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생계의 부담으로 부모상담을 위한 시간을 내기 어렵다. 찾아가는 부모상담이 필요하며, 부모를 대신하여 멘토의 역할을 해줄 지원자를 연결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다섯째, 청소년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관련 기관 간 연계의 중요성은 현장 종사자나 관련 부처 담당자 사이에서 인식되고 있다. Cys-Net이나 Wee 프로젝트 부처 담당자들은 평가지표 도입을 통해서 지원기관의 연계를 강화하려고 한다. 상담센터와 쉼터는 가출청소년 지원과 관련하여 협력의 주요 축을 구성하는 기관인데, 상담 정보 공유와 관련하여 인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청소년의 생활을 책임지는 쉼터에서는 청소년 상담내용을 상세히 알고 싶어 하지만, 상담센터에서는 상담의뢰인의 비밀보장의 의무를 지키려고 한다. 타협점은 상담센터는 청소년 안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성폭행, 가출, 자살 등과 같은 상태에 대해서는 쉼터 책임자에게 청소년의 상태를 알려주어야 할 것이다. 보다 상세한 수준에 대해서는 양측이 협의하여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전학과 관련하여 학교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 해당 청소년 사례관리에서 학교 측이 빠지려고 하는 경우, 전학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언급되고 있다. 효과적인 청소년 지원을 위해서, 지역내 청소년 관련 기관의 연계가 필요하지만, 효과적 연계를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권고와 지역상황에 맞는 연계방식이 적절히 결합되어야 한다.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형화된 네트워크는 지속되기 어렵다.

■ 발표 3 ■

학교폭력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방안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1. 서

최근에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자살하는 일이 늘어나는 등 학교폭력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건강한 사회의 역군을 키워 내기 위한 학교에 어울리지 않을 법한 폭력이 존재한다는 점은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야 할 청소년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무관심하게 넘어 가서는 안될 일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문제는 최근에 생겨 난 문제가 아니다. 이미 2005년 2월에 당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학교폭력 예방 및 5개년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며, 2012년에 또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 들려오고 있다. 2005년의 계획에서 발전된 계획이 나오는지 그것이 아니라면 이유는 무엇인지가 논의될 필요가 있다.

폭력의 피해자는 트라우마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쉽지 않으며,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뀌는 등 폭력의 피해는 매우 크다. 특히 청소년기의 폭력피해는 성인기로의 전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폭력의 초기단계에서의 개입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10년 본원에서 조사한 ‘남·녀 청소년 대상 폭력실태조사’에서 폭력가해 청소년은 비가해청소년에 비해 동종폭력의 피해자일 경우가 훨씬 높았으며, 특히 이러한 경향은 남성청소년보다 여성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 또한 폭력가정 자녀의 경우 그들 자신이 보고 자란 가정폭력이나 구체적인 학대경험이 학교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의 문제로 발전되며, 형제 또는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갈등해결의 방법으로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은 여성청소년에 비해 남성청소년쪽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여성청소년 학교폭력의 심각성도 이에 못지 않으며, 위 조사에서와 같이 가해청소년의 피해중첩수준이 여성청소년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 등은 여성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대책의 수립을 필요로 한다.

이하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과 정책을 살펴 보고 문제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소년사법이 필연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겠지만, 여기서는 학교폭력법을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 대응체계에 한정해서 논의하기로 한다.

1)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가해 중 하나 이상 가해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경험을 조사해 보았다. 가해학생 중 1개의 폭력피해 경험에 있는 경우는 전체학생 24.69%, 가해학생 41.81%, 2개의 폭력피해 경험에 있는 경우는 전체학생 5.91%, 가해학생 16.38%, 3개의 폭력피해 경험에 있는 경우는 전체학생 1.23%, 가해학생 5.41%로 나타났다. 가해청소년 집단의 피해 중첩수준은 남성청소년 0.76, 여성청소년 1.11, 폭력가해청소년 중첩성은 0.90, 비가해청소년은 0.30으로 나타나 여성청소년의 폭력피해가 남성청소년에 비해 더 중첩적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폭력가해청소년은 비가해청소년에 비해 폭력피해의 중첩성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 윤덕경 외 (2011), 「여아와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방안 : 여성청소년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 실태와 대응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292, 296.

2. 학교폭력 관련 법과 정책

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 법의 제정배경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등을 규정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법’이라 함)이 학교폭력²⁾에 관한 주요 법률이다.

이 법은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정부의 학교폭력 대응 기본방침은 과거 학교가 학교폭력문제를 무조건 감추려는 경향이 있었고 결국 학교폭력대책이 실패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한 반성을 통해 학교폭력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하고 노출시켜서 가정·학교·지역사회가 함께 해결책을 고민한다는 차원에서 이 법이 마련되었다(2004. 1. 29). 이 법의 시행을 계기로 학교폭력에 대한 제반 정책을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수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2) 법의 주요 내용

가) 주요 내용

학교폭력법은 제정 이후 4차례의 일부개정을 통해 개선점들이 보완되고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첫째, 이 법의 적용은 학교내외에서 발생하는 학생들간의 폭력에 국한되며(제2조), 둘째, 특별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을 적용해야 한다(제5조), 셋째,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것이다(제12조). 넷째, 학교폭력 신고의무규정이 있어서 누구든지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자치위원회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으며,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다(제20조).

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학교폭력법 제2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도 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그에 대한 성과를 평가, 공표하여야 한다(제6조). 교육부에는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제7, 8조), 시·도에는 학교폭력지역위원회를(제9, 10조), 학교에는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 함)를 두도록 하며(제12, 13조), 모든 학교에는 상담실 설치, 전문상담교사 배치, 학교폭력 책임교사로 구성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두도록 하고 있다(제14조). 특히 피해학생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전담기구는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한 조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으면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의 상담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전담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며, 학교장 및 자치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경우 학교폭력에 관련된 조사결과 등 활동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조사에 협조하며, 학교의 장은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관련하여 학생, 교직원에 대한 교육과 인터넷 홈페이지 교육 등을 통한 학부모교육을 강조하고 있다(제15조).

학교폭력을 신고받거나 학교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피해 학생을 조사하여 자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되며, 동 위원회는 분쟁조정, 가해학생 조치 및 피해학생 조치 등을 하게 된다.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피해학생 및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안되며(제21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제22조). 피해학생의 보호, 장애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재심청구, 분쟁조정에 관련된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않으며,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제21조).

나) 자치위원회 관련 사항

(1) 자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1.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수립을 위한 학교 체제 구축, 2. 피해학생의 보호, 3.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징계, 4. 피해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쟁조정, 5. 시행령이 정한 학교폭력 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및 학생회 대표가 건의하는 사항을 심의한다(제12조).

자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과반수를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대표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제13조) 학부모대표의 참석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자치위원회 회의 소집은 자치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 이루어 지며,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2) 피해학생의 보호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등의 조치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제16조). 긴급한 경우 1, 2, 6호 조치를 하고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학교의 장은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고, 성적 평가 등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에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데,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을 경우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이 비용을 부담하고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학교의 장 또는 피해학생의 보호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공제급여³⁾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

(3)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친 후 가해학생에 대하여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10일이내의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7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에는 「초·중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⁴⁾ 가해학생

3) 여기서의 공제급여는 1. 요양급여, 2. 장해급여, 3. 간병급여, 4. 유족급여, 5. 장의비를 말한다.

4) 「초·중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학생을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조치를 받는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으며,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전학전의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을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분쟁조정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조정, 2. 그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으며, 그 분쟁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제18조).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할 때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 중 어느 한 쪽은 자치위원회에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치위원회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분쟁조정을 시작하여야 한다(시행령 제14조). 자치위원회는 1. 분쟁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 2. 피해학생 등이 관련된 학교폭력건에 대하여 가해학생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 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시행령 제15조).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종료하는 경우는 1.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자치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분쟁당사자가 수락하는 등 분쟁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2. 분쟁조정 개시일부터 1개월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이다.

3) 최근 학교폭력법 개정사항

2012.1.26 개정(2012.7.27 시행)된 학교폭력법의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따돌림의 심각성을 인식하도록 따돌림의 정의를 신설하고, 강제적인 심부름도 학교폭력의 정의에 추가함(제2조).
-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시·도교육청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하도록 함(제6조제3항 신설).
- ③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 위원에 심리학자를 포함하도록 함(제8조제3항제4호).
- ④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치료 등을 위하여 상담·교육·치료기관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함(제10조제3항 및 제4항).
- 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학교는 교육감의 보고를 거쳐 둘 이상의 학교가 공동으로 자치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12

조 단서 신설).

- 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소집요건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에서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함(제13조제2항제1호).
- ⑦ 성폭력 등 특수한 학교폭력사건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을 전담하는 기구가 전문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7항).
- ⑧ 피해학생의 치료를 위한 요양비 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조언 및 일시보호에 소요되는 비용까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불분명하거나 부담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이후 가해학생 보호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피해학생의 보호자로 하여금 필요시 공제급여를 학교안전공제회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6조제5항 및 제6항)
- ⑨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경한 조치’에서 ‘중한 조치’ 순으로 변경함(제17조제1항).
- ⑩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 30일 이내에 이행하도록 하고, 가해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 이후에는 피해학생 소속 학교로 다시 전학오지 못하도록 함(제17조제5항 및 제8항).
- ⑪ 자치위원회가 내린 전학 및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및 보호자는 시·도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의2 신설).
- ⑫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학교의 장 뿐만 아니라 해당 학부모에게도 통지하도록 함(제20조제4항).
- 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제2항 신설).
- ⑭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자가 직무상 알게 된 학교폭력 신고자나 고발자와 관련한 자료를 누설하지 못하도록 함(제21조제1항)

4) 법 개정의 성과

첫째, 학교폭력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제정법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내외에서 ‘학생간에 발생한 폭행·협박·따돌림 등에 의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개정함으로써 행위유형을 다양화하고 있다. 최근 따돌림이 많이 문제됨으로써 '따돌림'의 정의를 명시하여 따돌림을 학교폭력의 하나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학교폭력전담기구의 구성을 통해 학교폭력 조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다.

법 제정당시에는 학교폭력전담기구는 없었으나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책임교사로 이루어진 전담기구를 구성하도록 하는 법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의 인력과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기구는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구성·실시하고, 학교의 장, 자치위원회 요구시 학교폭력에 관한 조사결과를 보고하며, 피해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에 관한 예산을 지원하고, 관계 행정기관은 조사에 협조하며, 학교의 전담기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예산지원이 수반되고, 성폭력 등의 경우 전문기관에 대한 의뢰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전담기구의 설치는 학교폭력 발생시 실질적인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자치위원회 위원구성을 실제 업무 위주로 재편성하였다.

법 제정당시에는 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학교의 장으로 하고 유고시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대행하도록 하였으나 이 내용이 삭제되었다. 또한 자치위원회의 과반수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된 학부모 대표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의 참여를 확대하였고, 위원은 학생생활지도의 경력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교사에서 10년 이상 경력을 삭제하였으며, 교감을 추가하고, 의사를 제외하였다. 회의소집 정족수를 자치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청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하였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에 학교의 장이 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사안의 의도적인 축소 등 학교장의 의사가 많이 반영될 소지가 있다. 학교장은 전담기구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을 진행하면서 독자적인 자치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르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위원회에서 학교장을 배제한 것은 의미있는 개정이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의 참여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대표가 아닌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된 학부모대표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한 것은 학생과 관련된 학부모의 참여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넷째, 학교폭력 처리과정에 피·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의 참여를 확보하고자 노력하였다.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고(법 제13조 제2항), 피해사실 확인을 위하여 전담기구에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법 제14조 제3항). 또한 교원이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학부모에게도 알리도록 하였으며(법 제20조 제4항),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경우 인적사항을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였다(법 제21조 제3항). 법 제정 당시에는 없었던 제도들이 법 개정을 통해 보완된 것이며, 피해학생·가해학생이나 그 부모의 처리과정 참여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것이다.

다섯째,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처리 일수나 비용청구 등 학교폭력처리과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자치위원회가 요청한 경우 학교의 장은 30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하고(법 제17조 제5항), 피해학생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경우 그 비용을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거나 학교안전공제회,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피해학생의 상담료 등을 가해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며 필요한 규정이다. 또한 해당 조치의 기간을 정해두는 것도 필요하다.

나. 학교폭력 관련 정책

‘제4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8-2012)’상 학교폭력으로부터의 보호에 관한 대책으로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지자체-정부 연계체계 강화’와 ‘학교폭력 가해·피해 청소년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강화’가 있다.

전자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중앙차원에서 교과부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간 협력강화가 이루어 져야 하고(교과부, 여성가족부), 지자체별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에 전문가를 배치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소년(상담) 지원센터와 연계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교과부, 여성가족부).

각 학교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의 폐쇄성을 방지할 수 있도록 경찰, 변호사, 청소년상담센터 소장 등 위원회 구성주체를 명시화하였다(교과부).

후자의 내용으로는 가해·피해학생의 회복적 지원강화를 위하여 청소년상담지원센터, Wee센터, ‘사랑의 교실’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도교육을 실시하며(여

성가족부, 교과부, 경찰청), ‘Wee 프로젝트’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⁶⁾ 등을 활용한 가해 청소년 특별교육 및 가족솔루션 캠프를 운영한다(법무부, 교과부).

학교폭력 피해학생 전문상담 지원서비스 지원강화를 위해 Wee 센터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안전망(CYS-net)간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교과부, 여성가족부).

한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전문기관과 전문가 양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바(여성가족부, 교과부) 학교폭력 예방 전문기관을 육성하고, 청소년 또래간 폭력관련 연구 및 치료프로그램 개발을 강화하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폭력 예방 전문가를 양성한다.

3. 학교폭력 대응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학교폭력의 복잡성에 따른 관련기관간 유기적 협조체계 미약

학교폭력대응체계는 학교폭력에 대해 소년법이나 형사법 체계에 접근하기 이전에 학교차원에서의 자율적 대응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낙인효과 등을 고려할 때 학교자체의 분쟁조정과정을 통해 사건을 처리해 나가는 매우 이상적인 체계로서 모색된 제도이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문제, 심리적 문제, 환경문제, 법률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관련기관간에 유기적 협조체계가 필요하다(김은경, 2007 : 24). 실제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 가해자, 각 부모, 담임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교장, 교육청 장학사, 상담자, 시민단체 등 각자의 입장에서 다른 접근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자치위원회는 학부모, 외부기관의 참여 등으로 그 역할과 기능이 매우 비중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 기관들간의 연계와 역할분담을 위한 ‘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나. 가해학생 대상의 지역사회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현재 가해학생 대상의 지역사회 프로그램이 대단히 제한적이며, 학교와 지역사회프로그램 제공기관과의 실질적 협력체계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어서 학교중심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만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학교폭력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과거의 징계제도 이

5) ‘사랑의 교실’은 절도·폭력 등 소년범의 재비행방지를 위해 경찰청이 실시하는 특화교육임.

6) ‘청소년비행예방센터’는 2007년 법무부가 전국 총 6개의 센터(부산, 광주, 청주, 창원, 안산, 대전)를 설립하였으며, 법원·검찰청·보호관찰소·학교 등에서 의뢰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인성교육, 부모 등에 대한 보호자 교육, 비행원인 진단을 위한 상담조사, 심리검사가 실시됨.

상의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형식적인 사과나 접촉금지조치 정도만이 학교현장에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로 이용된다면 실효성이 없고, 가해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책임을 자각하는데 기여하기 보다는 책임면탈의 자세만을 확산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역사회 기관들의 교육, 치료의 기회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학교폭력법에서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상담·치료·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법 제10조) 실제 지역사회 기관들과의 연계를 통한 상담·치료·교육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 학교폭력법과 소년법상의 역할분담 명시필요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법에 의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소년법의 소년사법절차에 의한 처리가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경찰이 학교폭력사안을 인지하는 경우 소년사법절차에 의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폭력법과 소년법 적용이 충돌될 경우 어느 법이 우선 적용될 것인가가 문제될 수 있다. 일단 양 법의 성격이 달라서 병행해서 적용되더라도 법리상으로는 문제는 없겠지만 처분을 받는 입장에서는 이중으로 제재를 받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법상 가해학생이 선도·징계조치로서 ‘사회봉사’를 받고, 소년법상으로도 사회봉사명령을 받는다면 가해학생은 같은 내용의 처분을 이중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정한 불법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학교폭력법에서 처리하고 여기서 처리하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절차가 주관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간의 역할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교폭력법 제5조의 개정을 통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외국 정책사례로 미국 공립학교의 ‘학생비행을 다루는 지침서’를 참고할 수 있다(김은경, 2007 : 31-32).

이 지침서에서는 미국의 학교현장에서 학교폭력 및 문제행동을 다루는 상세한 절차와 방법을 다루고 있다. 학생이 국가 및 형법에서 설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원의 합법적 지도에 불응할 경우 적절한 규율조치를 취해야 하며, 학생의 권리와 이익보호와 함께 교원의 책임과 한계, 사법적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과의 협력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금지행위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교 조사와 압류체포정책, 범죄행위 발생의 보고, 학교관련 범죄 및 학교와 관련되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한 경찰조사, 학생에 대한 체포절차와 협력관계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학교와 경찰을 비롯한 사법제도간의 업무

7) 이 지침서는 금지행위를 A급 위반(심각한 범죄), B급 위반(범죄), C급 위반(교육부에서 규정한 금지행위), D급 위반(학교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협력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금지행위의 등급화를 통해 학교에서 처리할 일과형사사법절차에서 처리할 일을 분명히 나누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라. 성폭력문제와 학교폭력법

성폭력문제는 여학생이 피해자로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학교폭력문제로 다뤄지는 경우 몇몇 뉴스화된 사건에서 처럼 가해학생들이 다수인 경우가 많은 것이 특징이다.

성폭력이 학교폭력의 범위에 들어 있으나 법 제5조에 따라 성폭력은 다른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학교폭력법에 성폭력을 정한 실익이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학교폭력법상으로는 피해자 결석시 출석일수 산입과 학교폭력 예방교육에 성폭력 교육의무가 중첩적으로 적용되는 정도이다.

성폭력문제는 일반인들이 학교폭력대응체계로서 대처하는 것에 대한 거부반응이 있을 것이고, 이미 피해자 보호에 관한 형사특별법상의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야 한다. 학교 성폭력문제와 관련하여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의 피해자 유발론 제기, 피해자에 대한 왜곡된 시선, 학교평가와 관련하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학교의 태도 등의 상황 속에서 고립된 피해자와 그 가족이 겪는 2차 피해는 실로 심각하다. 인터넷의 발달로 피해가 널리 유포되어 피해자가 인권침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내의 대응체계만으로 피해자의 피해를 제대로 밝혀 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능할 지는 의문스럽다 할 것이다. 그런 이유에서 학교폭력법은 성폭력에 대해 다른 법률이 있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성폭력문제를 범죄유형에 따라 나누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 등에 대해서는 학교폭력법의 절차를 따르도록 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맺음말

학교폭력법에 의한 학교폭력대응체계는 형사사법체계와는 별도로 학교차원에서의 자율적인 분쟁해결체계로서 형사사법절차에 의한 낙인 등을 고려할 때 학생의 인권보호와 건전한 사회구성원 육성에 적합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학교차원에서 학교폭력에 개입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사후 대책을 논의함으로써 학생들이 초기에 학교폭력의 태도를 단절할 수 있다면 더 없이 좋은 제도라고 할 것이다. 학교폭력법이 자치위원회에 학부모 대표를 다수 참가시키고, 피해학생의 치료비를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부담하도록 한 것, 전담기구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가해학생 조치기간 의무화 등은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좋은 법과 제도를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학교폭력에 관한 우리의 관심이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서 학교폭력법의 방향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벌보다는 예방교육 및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의 사후관리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방교육을 실질적으로 시행하고,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치료·상담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필요하다.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는 자율성과 정체성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 학교폭력 같은 친구관계를 청소년기 초기에 경험하면 정신적으로 건강하기 어렵다. 피해자에게는 우울, 불안, 사회공포, 외상후 스트레스 등이 나타나고, 가해자에게는品行문제, 물질남용, 과잉행동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가해자의 경우 유사한 유형에 대한 피해경험이 있다는 것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가해·피해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학교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및 양쪽을 모두 경험한 피해자/가해자 집단에 대한 추적관찰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끝으로, 「2010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에서 성별에 따른 학교폭력 피해경험 중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후 자살생각 여부의 물음에 대해 자살을 1회 이상 생각한 비율은 남학생(25.8%), 여학생(44.3%)로 나타나 여학생이 높다(청예단, 2010). 자살생각 여부는 여학생에게 특이한 욕구를 고려하여 정책을 수립할 때 특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며, 여학생을 위해 특히 자살을 예방할 정책수단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은경(2007), “학생 성폭력 범죄의 쟁점과 과제”, 「학생 성폭력 대책 토론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2007. 4. 20, pp.7-39.
- 여성가족부 등, 「제4차 청소년정책(수정·보완) 기본계획 2008-2012」.
-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11), 「2010년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학교폭력 피해 실태와 성인지적 대응 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친화정책전략단

(122-707)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25

TEL. 02-3156-7225 FAX. 02-3156-7005 www.kwdi.re.kr